

공공경제

2023 AUTUMN Vol.15

기획특집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혁신도시 박람회 경북 혁신도시, 첨단 교통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계획도시로 나아가다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공공의 길, 국민을 바라보자

1997년 말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이라 불리는 외환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공부문 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관치의 관행이 뿌리내려 있고 공공의 조직과 인력구조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 감독과 규제로 인해 비효율과 관료주의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됐다. 또한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의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는 ‘말만의 개혁(No Action, Talk Only)’에서 벗어나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했다.

‘국민의 정부’를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끝나갈 즈음,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2 공공개혁백서』(2002. 12.)는 공공부문의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근저에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단일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개발연대의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평가한다.

이후 공공기관은 정부 교체 시기마다 개혁과 혁신의 주요 대상이 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혁과 혁신을 이끄는 중심축에 정부, 학계, 민간부문 등은 참여하고 있으나, 정작 공공기관 구성원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과연 공공의 혁신과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때가 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효율적인 경영을 지향해야 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의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지 않아도 민간의 수익과 생산성을 높여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과감히 민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화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회고와 전망』(2015. 9.)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지난 30년 동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제도 운영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 이 제도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진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매년 6월 중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아마도 국민보다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궁금해할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처럼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40년을 맞이하면서 분기점에 직면해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경영평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공공기관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는지 들을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공공기관이 ‘기승전 경영평가’가 아닌 ‘기승전 국민’이 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의 길을 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CONTENTS

공공경제

2023 AUTUMN Vol.15



표지 이야기

평화의 탑은 사명대사의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명대사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사진출처: 김천시청)

발행인	김재진 KIPF 원장
편집인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KIPF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강석훈, 남지현, 이부연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바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화	(044) 414-2431
이메일	soe@kipf.re.kr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



08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지원방안
노판열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

12 전문가VIEW I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새롭고 친근한 민·관 협력으로의 전환을 향하여
김고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5 전문가VIEW II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규제 방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18 Round Table

민간·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완화 방안: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이번 「공공경제」
Vol.15는 어떠셨나요?

「공공경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신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 26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 30 Trend Focus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조직에의 시사점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34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대표 사례 비교: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영국의 UKGI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42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장태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장
- 48 혁신이야기 I_한국수력원자력(주)
그린수소 실증 협업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50 혁신이야기 II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 신속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키기

공공기관 TALK



- 54 CEO인터뷰 I
디지털 기반의 우정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정호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 60 CEO인터뷰 II
관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관광공사가 이끌어하겠습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 66 혁신도시 박람회
경북 혁신도시, 첨단 교통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계획도시로 나아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 72 잡(JOB)담 I
국립공원공단
임상우 국립공원공단 인재개발부 과장
- 76 잡(JOB)담 II
국립생태원
강하림 국립생태원 인재경영부 과장
- 80 나의 취업성공기 I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장현준 한국조폐공사 생산처 생산관리부 사원
- 82 나의 취업성공기 II
19살, 너도 취업할 수 있어!
김신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주임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주제로, 정부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정책리포트’에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전문가VIEW’에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규제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본다. 마지막으로 ‘Round Table’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한다.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지원방안

전문가VIEW I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새롭고 친근한 민·관 협력으로의 전환을 향하여

전문가VIEW II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규제 방향

Round Table

민간·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완화 방안: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지원방안



노판열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

들어가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① 생산성 제고, ②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대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혁신 방향인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특허 등 각종 유·무형의 자산과 역량을 국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늘은 그 중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알아보자.

데이터 개방정책 추진체계 수립

먼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22년 10월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발족했다. TF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분야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분기마다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데이터 수요 조사, 개방 기준 수립, 기관별 데이터 개방 실적 관리 등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데이터 전면 개방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 후 130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개방한 데이터는 1,178건으로, 기관당 9.1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대책 추진 전 10년 동안 누적 개방 건수가 291개 기관에서 1만 7,627건(기관당 평균 60.6건)임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개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관광 등 10대 핵심 기관의 데이터 192건을 우선 개방했고(2022년 12월까지), 산업·금융·환경 등 120개 기관에서 국민이 개방을 요청한 549건과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방한 437건 등 986건을 추가 개방했다(2023년 1월까지).

그림 1

10대 핵심 기관의 개방 데이터 및 활용 사례

기 관	데이터	활용 사례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정보	TOSS(금융플랫폼 앱) 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 개발 시 활용
	입주예정 물량 정보	빌트인 가전제품 수요 추정 및 생산 계획 수립 시 활용
한국철도공사	철도이용객 관광 패턴	여행사가 여행상품 개발에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뇌동맥류 MRI 영상	뇌동맥류 정보를 분석하여 보조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중(뉴로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	헬스케어 앱 건강상태 분석, 검진 예약 서비스 개발에 활용

그림 2

데이터 전면 개방 현황 (단위: 건)



공공기관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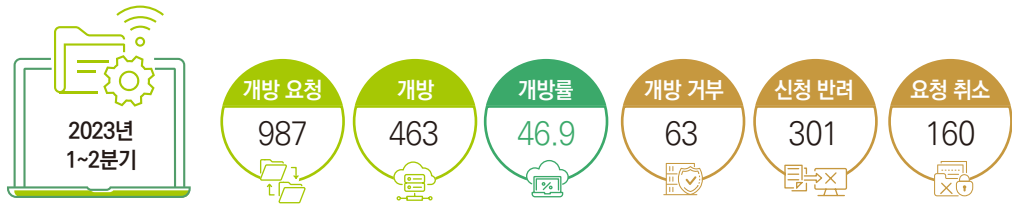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및 사업 실패 시 재창업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 정비 중이다. 먼저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창업자에게 맞춤형 데이터 제공 등 윈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창업 지원 서포터즈' 지정을 완료했고, 창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같은 창업 관련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이 불가피하게 실패하더라도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규정을 개정해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료, 보증비율 우대조항을 신설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데이터 활용 창업 실패자를 잔여채무 처리를 위한 특수채무자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별 데이터 개방 실적 관리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제적인 데이터 개방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지만, 그 데이터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보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기관별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의 개방 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해 개방률이 평균보다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재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림 3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개방 실적
(2023년 2분기까지)
(단위: 건, %)



2023년 2분기까지 개방률은 46.9%로, 2022년의 41.6%보다는 높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기관별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분기의 개방률이 52.2%로 1분기 개방률 41.5%보다 10.7%p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1분기 개방률을 근거로 실시한 기관별 재검토회의의 효과가 2분기 개방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분기 대비 2분기 개방률이 하락한 일부 기관도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러한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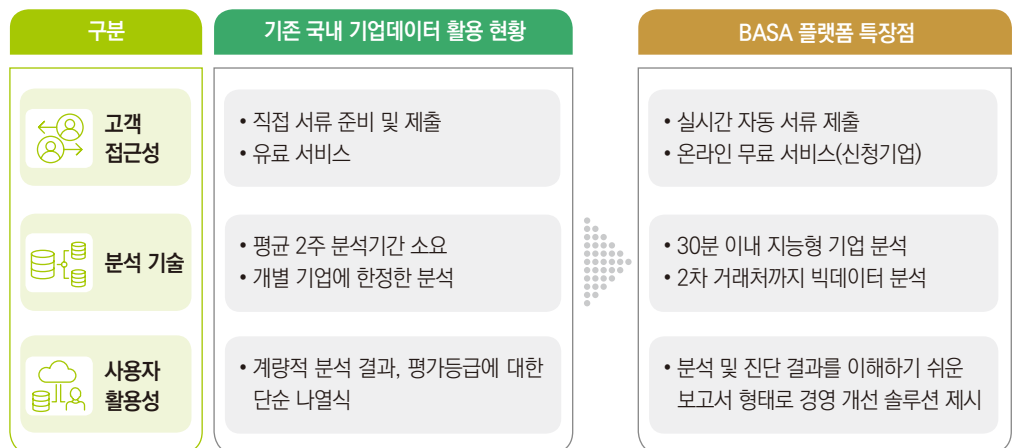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보유자인 동시에 수요자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 수요 조사를 거쳐 총 3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BASA Solution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는 중소기업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업정보 인프라에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으로, 2022년 3월부터 약 120만개 중소기업 정보를 시범제공 중이다.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분석, 활용하는 과정을 실시간·온라인으로 개편한 부분이 주요 특

그림 4

기존 국내 기업 데이터 체계와 BASA 플랫폼의 차이



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해 서비스 고도화를 요청했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데이터 보유 공공기관과 업무 협의를 실시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신용보증기금의 BASA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DB 표준화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신규 협업데이터를 포함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는 통신·카드 관광통계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2021년 7월에 구축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고객 맞춤형 관광 특화 분석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자의 이동 패턴 데이터를 융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이동수단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업무 조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가명화된 철도회의 및 8대 주요 관광도시 관광 심층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고, 한국항공협회 협조를 받아 외국인 입국자 수 데이터와 항공편별 환승객 현황 등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올해까지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서비스

해외경제정보드림 서비스는 기업 해외 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하나의 포털에서 분야별 정보를 시장진출 단계별로 제공하는 범정부 통합채널이다. 지난 2021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후 현재 3단계 고도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직접투자 통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결제 정보, 국가별 신용현황 보고서, 진출 대상 국가의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 공유를 요청했다. 요청 데이터의 일부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해 업무 조정에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통계 데이터를 위주로 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중 협업데이터를 포함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맺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실적을 파악해 개방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재검토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개방 TF에 보고하는 데이터 개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해 ‘모범안(Best Practice)’을 전 공공부문에 전파해 정보보유자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새롭고 친근한 민·관 협력으로의 전환을 향하여



김고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국·공유지 효율적 활용 배경과 필요성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목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공유지 정책은 항상 지금과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못하였다.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며 변화해 왔다.¹⁾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초기에는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이 중심이 되어 왔다(1945~1976년). 1970년대 중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처분 중심 정책으로 인해 국유재산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우리의 국유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국유재산 등기를 추진하면서 ‘국유재산의 유지·보존 중심’ 시기를 맞았다(1977~1993년). 그러나 유지·보존 정책만으로는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은 ‘국유재산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신설과 국유재산개발신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는데, 이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경상경비로 소진되기보다 미래 국유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토지를 확보하고, 유휴 국유부동산의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윤석열 정부도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활용·개발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기존 국유재산 관리 정책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국가·지자체의 직접 활용을 넘어 매각을 통해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8월 14일,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논의한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서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①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

1) 지대식·김승종·엄근용(2008),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재정경제부·국토연구원, pp. 9~11.

유재산, ②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③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 ④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의 매각·활용 업무 및 지자체 협의를 신속처리(패스트트랙)하기 위해 ‘국유재산 협력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공유지 활용성 증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향

최근 들어 국유재산 정책은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조한다. 특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서 민간 참여는 매각 확대와 「국유재산법」 제59조의2에 따른 ‘민간 참여 개발’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2022년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5년간 16조 + 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방안이 제시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민간 참여 개발 제도는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며 개발 대상, 개발 주체 및 방식, 국가 출자 규모, 대부기간 등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유지 민·관 협력은 민간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국·공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여러 한계에 부딪혀 왔다. 민간 참여 개발 제도는 2011년 첫 도입 이래 실질적으로 추진 사례가 없으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 매각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어 왔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 국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하며, 이를 위한 공간 플랫폼으로서 국·공유지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욱 가볍고 친밀한 방식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의 ‘국유재산 K-콘텐츠 지원 및 모바일 플랫폼 개발’ 정책은 새롭고 친근한 민·관 협력 방안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전 세계에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배경에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지 곳곳의 장소적 매력을 DB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국민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만들어, 현재 99.97%가 6개월 이상 중장기로 운영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 국·공유지의 역할

가볍고 친밀한 방식으로 국유재산의 K-콘텐츠 지원 및 단기 대부 모바일 플랫폼 개발은 3년여 만에 맞이한 엔데믹 시대에 국·공유지 정책이 담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기나긴 팬데믹 동안, 우리의 체질은 크게 변화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모바일로 손쉽게 정보를 얻고 거래하는 방식을 더욱 보편화시켰다. 부동산 거래라는 고가의 상품을 다루는 까다로운 시장마저 모바일 서비스로 편입됐다. 팬데믹 동안 늘어난 공실



과 재택근무의 확산은 IT와 부동산산업의 만남을 통해 공실 부동산의 단기 임대 중개 방식으로 공유 오피스·사회주택 등 다양한 프롭테크(propo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사회혁신기업을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이 끝나면서 우리나라 오피스 공실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최근 서울 오피스 시장은 자연공실률인 5%보다 훨씬 낮은 2.4% 수준에 도달했다²⁾. 전통적인 대면 근무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재택근무에서 사무실로의 복귀가 활발히 이뤄지고, 오피스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며³⁾ 공유경제 프롭테크 기업은 동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공유지는 새로운 생활양식과 공간 수요를 지원하여 혁신적인 업무·주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민·관 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해 연구한 민간 참여 사업 사례⁴⁾에서 사회혁신기업의 창의력이 깃든 사업들의 독특한 공간 활용 방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사업 대상은 반드시 기존 국·공유재산인 공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정부가 새로 매입하거나 매입을 약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더욱 잘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에서 주로 이뤄지는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을 통해 하나의 건물을 통째로 장기 임대해 입점 업체, 리모델링 등을 조화롭게 관리·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협동조합 같은 형태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관리하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식도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성격에 따라 공공이 금융 지원을 하거나,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리츠, 펀드 등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러 공공청사 건물의 한편에는 이용하지 않는 넓은 로비, 잡초만이 그득한 옥상정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을 개방하고 단기 대부 모바일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빌려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민·관이 협력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과 서비스를 잘 아는 민간의 탐색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국·공유지와 공공서비스로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에 따라 도입한 목표였던 것처럼, 민·관 협력 방식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 분위기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식이 엔데믹 시대에 맞춰 새롭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실제로 여러 공공청사 건물의 한편에는 이용하지 않는 넓은 로비, 잡초만이 그득한 옥상정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간을 개방하고 단기 대부 모바일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빌려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민·관이 협력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지역 여건과 서비스를 잘 아는 민간의 탐색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국·공유지와 공공서비스로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에 따라 도입한 목표였던 것처럼, 민·관 협력 방식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 분위기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식이 엔데믹 시대에 맞춰 새롭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2) 『중앙선데이』, 「한국만 별천지? 공실률 2.4% 서울엔 빈 사무실 거의 없어 [상업용부동산발 금융위기 경고음]」, 2023. 7. 8. 9면

3) 『이데일리』, 「서울 A급 오피스, 수급 불균형으로 공실률 연속 하락」, 2023. 4. 20.

4) 김고은·박소영,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 Working Paper(WP 22-24호), 세종: 국토연구원, 2022.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규제 방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챗GPT의 등장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겨룬 바둑에서 완승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출시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의 질문에 꼭 맞는 유용한 답을 하는 대화형·생성형 AI로, 일반 대중에게 AI의 일상화라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손 안의 컴퓨터 시대를 연 아이폰, 2016년 인간 바둑기사를 이긴 알파고의 충격 이후 6년 만에 챗GPT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있다.

대화형·생성형 AI 모델인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그동안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AI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연합(EU),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가 생성형 AI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입법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한국도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본격 도입 이전에 생성형 AI의 특성을 이해하고, AI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을 고려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AI 특성과 규제 현황

생성형 AI인 대표 격인 챗GPT는 문장을 생성(generative)하는 AI 모델로 사전학습(pre-trained)을 통해 훈련받았으며, 트랜스포머(transformer)라는 구조에 기반한 인공지능 언어모델이다.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란 대규모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지도 학습하여 명령어(prompt)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 코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도록 설계한 기존 AI 시스템과 달리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생성형 AI 모델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점이다. 우선 언어모델(LM)은 문장 생성을 위해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이다. 대규모 언어모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학습해 실제 인간과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한 언어모델로, 점차 규모가 커지며 초거대 AI로 진화하고 있다. 둘째, 생성형 AI 모델은 콘텐츠를 창조한다. 기존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 낸다. 즉, AI의 역할은 데이터 분석, 활용 등 인간의 행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데 그친다. 생성형 AI는 자가학습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디지털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을 ‘창조’한다. 셋째,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학습·추론하는 인공지능으로, 텍스트 이해·생성, 자연어 처리, 이미지 분류, 예측, 추론 등 다양한 과제(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을 모방한다. 기존의 AI는 대화, 질의응답, 기계번역 등 태스크별 개별 모델로 개발됐으나, 생성형 AI 모델은 인간이 하는 다중 작업(멀티태스킹)처럼 하나의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동시 처리한다. 넷째, 기존 검색 모델과의 차별성이다. 검색 모델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생성형 AI 모델은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검색 시장 핵심 가치가 검색 효율성에서 생성한 답변의 신뢰성으로 변하고 있다.

다음은 AI 규제를 살펴보자. 가장 앞서가는 곳은 EU이다.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AI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에는 각료이사회가 수정안을, 지난 5월에는 의회가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 GPT로 대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규제를 추가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에 의해 학습되고, 출력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됐으며,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모델로 정의한다.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는 모델의 위험관리, 신뢰성관리를 위한 검증, 모델을 공급받아 활용하는 하위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까지 고려한 모델 기술문서와 지침의 작성,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AI 시스템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법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개

발해야 하며,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학습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2년 2월 ‘알고리즘 책임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을 발의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이용자와 규제기관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이 의사결정의 영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의무, 신뢰성 확보 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법안은 누구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 등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AI 규제의 방향

규제는 위험의 통제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위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챗GPT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표절이나 대필 등 저작권 침해,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학습능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전문직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챗GPT로 인해 인간은 논문 작성, 프로그래밍, 번역, 교정 등 지식 노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다. 셋째,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AI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자율적으로 AI가 작동하도록 하는 규칙인 알고리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AI 윤리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AI 개발자는 물론, 제조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 AI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음, 최후 수단으로 경성규제(hard law),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경성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원칙중심 규제, 네거티브 규제, 국내 규제와 국제 규제의 조화, 위험 기반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위험에 상응하는 규제 도입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관리가 이뤄지는 비례적 규제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간·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완화 방안: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조민혁 현 정부는 최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일명 ‘킬러규제(또는 과잉규제, 숨은 규제)’의 철폐를 약속하는 등 규제 완화·혁신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의 추진 방향과 지금까지의 성과, 한계 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준석 현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 경영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부처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신고받는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는 개혁할 수 있는 규제 찾기를 정책 우선과제로 다루며, 과거 규제개혁의 결절점이 되는 덩어리 규제(중복규제)를 다루기 위해서 민간(은퇴 공무원, 연구원, 학계 대표)과 정부가 같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에 관한 정부의 결과 보고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소 아쉽지만, 올 5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그로 인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7월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후, 2023년 7월까지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누계 승인 건수가 1천건을 돌파했습니다. 현 정부는 20년간 규제개혁을 지속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와 최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일자

2023년 8월 22일(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Webex)

사회

조민혁

토론자

양준석, 이혜영, 김용기, 황호연

정리

강석훈, 이부연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확대하고 강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 측면의 규제개혁을 강조하는데, 규제개혁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소비자 관점에서도 도움 줄 수 있는 과제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인식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추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 추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부처별 자율적인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했고,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환경·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13조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규제개혁의 노력이 좀 더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위 파급력 있는 킬러규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규제 발굴과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조민혁 방식과 정도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체감한 성공적인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던 반면, 국민이 크게 체감하지 못한, 실패한 규제개혁도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과 과거 정부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준석 규제개혁의 가장 큰 성공 사례는 김대중 정부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규제개혁이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개혁이 없었던 그린필드에서 이루어진 첫 시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큰 측면도 있지만,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부처들은 규제 이력을 추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의 유형과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각 부처 차원에서 규제를 기록하고, 시행 중인 규제의 절반을 없애도록 했으며,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제거하거나 즉시 법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추후 이러한 정책에 ‘규제단두대(regulatory guillotine)’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후 정부마다 중요성은 다르지만,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유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발족하고,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개혁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규제신고센터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신

문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의 일부 책임이 이렇게 여러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장기적인 규제개혁 추진력이 다소 약해진 점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규제개혁이 비교적 취약했던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점은 규제개혁의 중요한 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혜영 규제개혁 초기 김대중 정부의 규제 50% 줄이기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박근혜 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등이 도전적인 규제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개혁이 지속적인 규제 개선 관리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 규제개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규제제도들입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수치로만 보면 2022년 말 현재 860건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이뤄졌고, 그중 181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제도들의 양적인 성과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기업이나 국민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 정부는 시장 중심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개선하지 못한 고질적인 핵심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 핵심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조민혁 아직도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해외 국가 사례와 함께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준석 주로 규제개혁이 잘 이뤄지는 국가로 영미권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미법 체계가 대륙법 체계보다 개인 권리를 더 강조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규제를 도입하기 어렵고,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가 더 쉬워 규제개혁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1970년대까지 규제가 상당히 심한 국가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수상을 맡으면서 영국 경제의 경직성을 제거해 시장 중심적인 경제로 만들겠다는 큰 틀을 세우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영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런던은 금융 중심지였지만,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존 금융시장의 경직성, 일부 기업의 독점력을 제거하고, 활발한 경쟁 경제를 유도해 런던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수 있게 하여 금융산업을 영국의 선도 산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혜영 나라마다 장점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규제관리제도의 장점을 소개하면, 기존 규제의 개혁 측면에서는 규제기관의 스투어드십(regulatory stewardship)을 강조하면서 규제(정책) 기능과 관련한 성과 목표를 정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규제



조민혁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용기
한국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장



황호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규제정책연구실장

와 평가 간의 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은 정책 과정과 결과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향상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관리하는 레그테크[RegTech: regulation(규제) + technology(기술)]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규제 대상을 줄이고 관리 및 규정 준수 비용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영향 분석(PIA), 사후 집행평가(PIR)도 좋은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민혁 현재 일선에서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과거 규제개혁과 무엇이 다른지, 기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규제개혁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한국남부발전은 2022년 규제혁신 활동으로 법 개정 등 정부 건의과제 12건, 내외부 이해관계자 규제 24건을 발굴했습니다. 정부 건의과제 12건 중 3건이 현재 정부에서 시행 검토 중이며, 1건은 법제화가 완료됐습니다. 종전에는 입찰, 계약 등 특정 분야 제도에 국한해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협력사 등 민간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 건의사항까지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채용탈락자를 대상으로 강요점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이른바 ‘보듬채용’을 4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해 정부와 국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향후 기관의 규제개혁도 사회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호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33개 지역본·지부(기업성장응답센터)와 S.O.S Talk(옴부즈만) 등의 협업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규제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옴부즈만 건의과제의 수용가능성, 즉 유사 사례가 존재하거나 부적합한 법령을 적용한 과제 등 수용가능성 높은 과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옴부즈만에 전달하고, 옴부즈만은 발굴 과제의 중복 검토 후 규제 관련 담당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률·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협력해 지역별 테마형 현장간담회(S.O.S Talk)를 개최하면서 지역별 특화산업과 경제환경을 반영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논의합니다. 그 결과, 2022년에 41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121건을 반영했습니다. 발굴·개선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인 주제를 정해 신산업, 지역별 특화산업 등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부터 미리 주제를 선정해 간담회 담당자, 분야별 규제 처리 담당자(인력, 환경, 기술 등), 협력 기관(중진공 지역본부) 과제 발굴 담당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의과제 발굴을 지원합니다.

조민혁 규제개혁 법률은 국회가 논의하고 규제개혁 정책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하지만, 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앙 공공기관들입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과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양준석 먼저, 규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상설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규제개혁에서 신설·강화 규제의 검토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루고, 기타 개선 분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과 규제개혁추진단이 담당하는데, 이 분야는 정부마다 책임이 바뀌는 경향을 보여서 규제개혁의 전문성과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을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집중하거나 규제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범정부 상설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실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규제개혁이 국민의 안전이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제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해 규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경을 설명하고, 규제가 승인된 경우는 필요성과 득실을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부처 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관한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규제는 각 부처의 힘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내 규제개혁 추진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상향식 압력이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음을 과거 경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력을 유지할 힘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은 정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규제도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정기적인 규제 검토 작업은 정부의 정상적인 일상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규제개혁을 지속하면서 규제개혁이 정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혜영 현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이어 나가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참여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이 어려웠던 핵심 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개혁 리더십을 발휘해 많은 규제개혁과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 감축제 등 좋은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좀 더 신속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변화해야 하고, 규제비용 감축제 및 규제 영향 분석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는 늘 순응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술을 활용한 규제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책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현장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깊이 고민한다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황호연 공공기관은 규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일상적으로 고객인 기업이나 개인과 만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의 문제점을 익숙하게 접하기 때문에 정부보다 빨리, 구체적으로 정부 규제 중 불편한 점을 알아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규제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중진공의 경우,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중진공의 장점인 현장성을 살려 33개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상시 수집해 애로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정책 개선과제로 전달하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2년 11월 중진공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6%)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한다는 응답이 높아,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함께 기업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 개선의 대상(what)보다는 해결방법(how)을 고민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방법보다는 규제개혁의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 규제 개선 실적을 내세우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규제 개선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둘째 규제 개선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한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규제혁신의 노력을 연계해 최적의 성과 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용기 정부의 법 제도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스며들어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에 적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규제개혁 방향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금지하는 규정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는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모든 행위를 금지·규제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제반 내부 규정이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펀더멘털(기초 여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부 규정의 포괄주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면 각 기관이 규제개혁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쟁점이 되는 국내외 동향 및 기관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과 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며, ‘Trend Focus’에서는 ‘오피스 빅뱅’이라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조직에 주는 시사점을 들어 본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싱가포르와 영국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사례를 비교하는 한편, 국내외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그린수소 실증 협업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응급 신속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지키기 사례를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조직에의 시사점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대표 사례 비교: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영국의 UKGI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혁신이야기

한국수력원자력(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소식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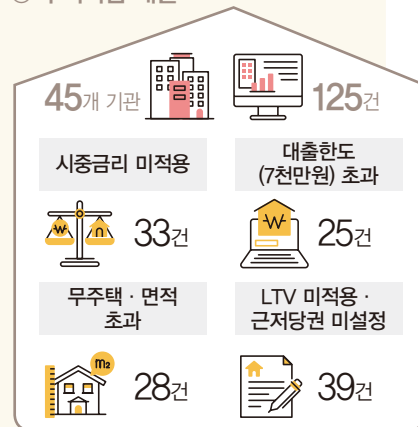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현황을 평가했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서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는 2023년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했으나,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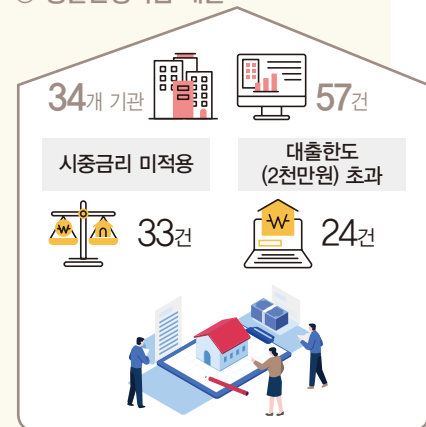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① 주택자금 대출(미준수 125건)과 ② 생활안정자금 대출(미준수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를 차지했으며,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에서 개선 필요하다고 점검했습니다.

① 주택자금 대출



②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획재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검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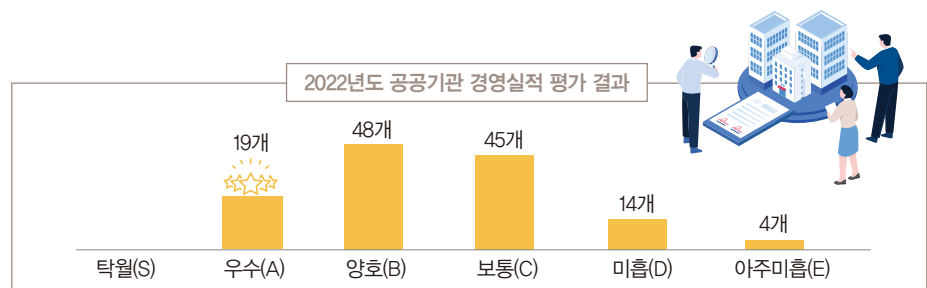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했습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10점 → 20점, 공기업 기준)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을 개선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 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공운위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과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임원에게는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진 대상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 최초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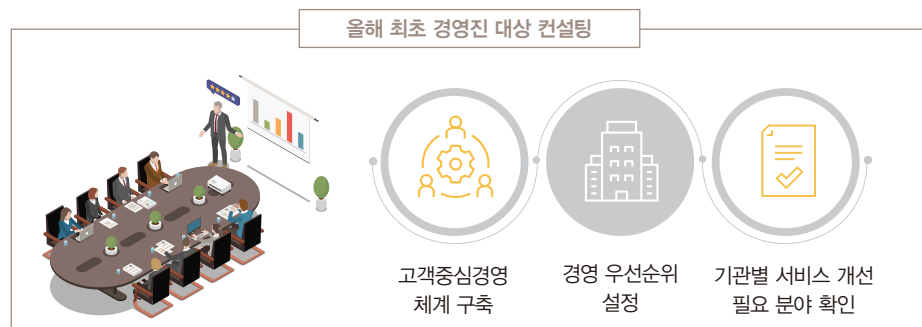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객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큰 규모의 1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고객중심경영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7월 4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중소형 준정부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실무자 대상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실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는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최근 2년 연속 고객서비스 개선 필요 공공기관의 경우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고객중심경영 체계 구축'과 '경영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영진 대상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김언성 공공정책국장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통해 기관별 서비스 개선 필요 분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해당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공공기관 고객만족경영 관련 민간 전문가 강의와 함께 최근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 공공기관 상호간의 토론을 통해 기관별 개선 필요 부분을 발굴해 나가는 능동적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컨설팅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고객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고객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편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



총 공급규모 확대

'23년 11만명 + 1만명 추가 확대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 가능



택배업·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추가

장기근속 특례 신설로 숙련 인력 활용 지원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해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

- 입국 전** 현지 직업훈련 대상국 확대
실습장비·훈련교사 역량 강화
- 입국 후** 기술훈련, 한국어·문화
교육 지원 확대
- 재직 시** 전기·전자 등 5개 직종 외
훈련직종 추가 확대

외국인력 관리체계 개편



상시 분석체계 구축

- 상시 수요 조사
- 전문가 심층 분석
- 허용 업종·규모 적기 결정



절차 간소화

- 부처간 전산 연계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산업안전 규제혁신

넓은 산업안전보건 기준 전면 개편



기술 발전,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680여개 산업안전 규정 선진화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확보

핵심산업 현장 애로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 릴레이 개선

반도체



건축법령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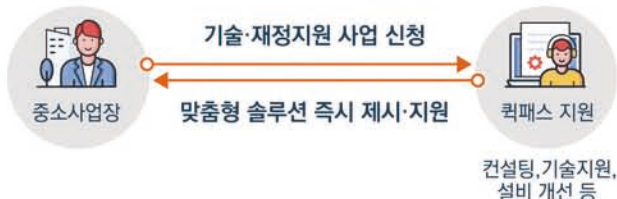
기술변화 및 실제 현장의 작업방식을
반영한 발파작업 안전기준 현행화

화학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
영업비밀 심사 의무 면제 등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조직에의 시사점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오피스 빅뱅의 시대

노동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증가했고, 조직에 소속되기보다 자유롭게 일하는 깃(gig) 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킹산직(king + 생산직)’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근무조건이 뛰어난 생산직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고, 동시에 많은 직장인은 스스로 ‘퇴준생(퇴사준비생)’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은 인력 충원, 탄탄한 조직문화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단순히 업무환경의 선호도, 근로조건 개선과 같은 파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근원적인 영역에서부터 변화가 일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예견했던 앤서니 클로츠 UCL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부교수는 코로나19가 ‘일의 의미’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일련의 현상들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현시점을 ‘오피스 빅뱅(Office Big Bang)’



의 시대로 지칭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노동에 대한 개인·조직·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매우 근원적이고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 빅뱅 트렌드는 선망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확산 중이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 및 공공기관 퇴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18~35세 공무원 가운데 5,961명이 퇴직해, 2017년 4,375명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전체 퇴직자 중 5년 이하 퇴직 공무원의 비율도 2017년 15%에서 2020년 21%로 증가했다.¹⁾

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쟁률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2023년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9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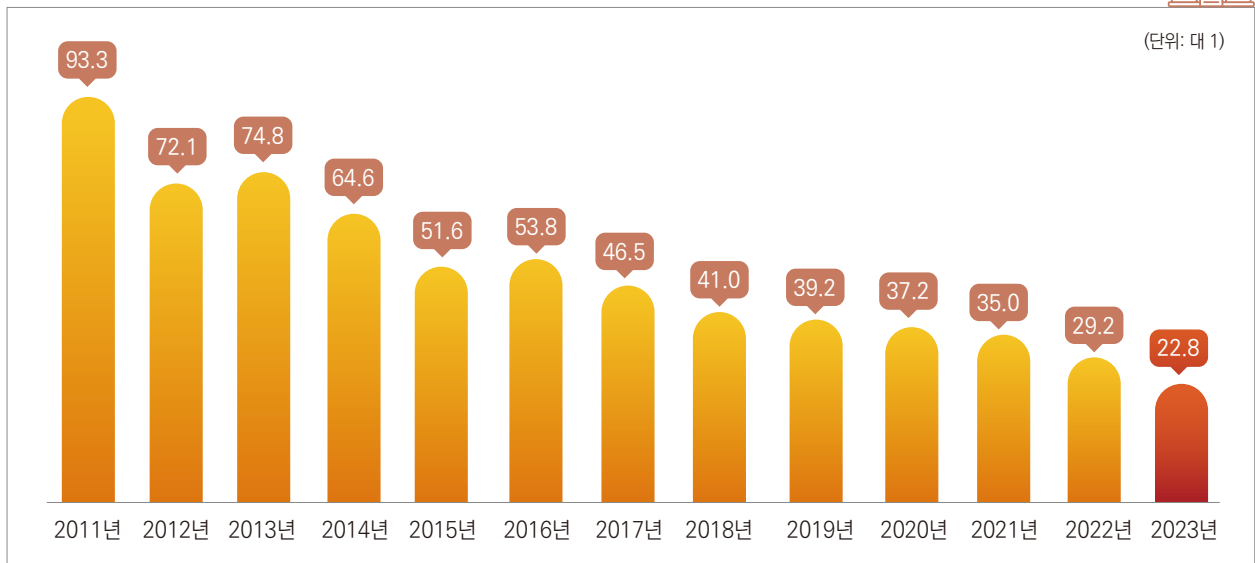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0대 1을 밑돈 해는 1992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뿐이라고 한다.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 시즌 3 ‘육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나온 이 대사는 밈(meme)이 됐다. 회사 신입사원이 에어팟(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근무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기성세대에게는 부적절한 근무 태도로 비치고 있음을 내포한 풍자로 해석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배경이 ‘조직’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20대부터 60대까지 넓은 범위 연령대의 조직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서로를 향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젊은 세대에 대한 세대 간 편견이 오히려 신

그림 1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추이



자료: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 1」, 보도자료, 2023. 3. 8.

1) 『매일경제』, 「공시 어렵게 불고도 사표 던지는 2030...그 사연 봤더니」, 2022. 3. 2.

그림 2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밈(meme)



자료: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 3 유튜브

구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한국 리서치가 'Z세대의 이질성, 그리고 세대 내 동질성'이라는 제목으로 Z세대에 해당하는 만 18~28세 313명과 29세 이상 848명을 대상으로 Z세대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자유'와 '규제'처럼 반대 성격의 단어 10쌍을 제시한 후 Z세대에게는 본인의 특징과 가까운 단어를, 윗세대에게는 Z세대의 특징과 가까운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윗세대는 Z세대를 더 즉흥적이고, 저항하는 세대로 인식했다. 사회성과 능동성도 떨어지는 세대로 인식했다. 하지만 Z세대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 Z세대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평가나 경쟁과 떨어져, 수동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현상이 화제가 됐다. 이 행동의 시비를 떠나 지금이 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단지 떠나는 인재를 어떻게 잡아둘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예전과 다른 조직문화를 준비해야 한다.

오피스 빅뱅의 시사점

오피스 빅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는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꾸려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준생들 사이에 가장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히는 '토스'를 살펴보자. 토스는 직장인 앱 '블라인드'에서도 업무강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회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사 홍보 SNS에 “직업 안정성과 편안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토스 팀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 회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만큼 책임을 지게 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²⁾

고가 요가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룰루레몬은 '온보딩(onboarding, 적응 지원)' 기간 동안 신입직원들에게 커리어와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장려한다. 룰루레몬 임원 승진이 목표인 직원이나, 자신의 패션 브랜드 창업이 목표인 직원 모두를, 개개인의 야망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가 동등하게 지원한다. 이 때문에 룰루레몬 신입직원의 90일 근속률과 입사 1년 차 직원의 업무 몰입도는 업계 평균 2배 수준으로 올랐다.³⁾ 룰루레몬은 신입직원의 온보딩만큼 퇴사자의 온보딩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튜디오나 체육관을 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를 떠나는 수많은 직원을 룰루레몬의 '앰배서더'로 만들고, 지역 룰루레몬 매장에 이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사진을 전시한다. 회사를 떠난 직원이라도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이전 직원들의 성공에 깊은 관심을 둔다. 이러한 직장인 생애주기 관리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한 인간으로서

2) 정채희, 「“오히려 좋아” 토스에 지원자 몰리는 이유」, 『한경BUSINESS』, 2022. 6. 30.

3)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터 만들기」, 2022년 5-6월호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둘째, 신뢰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다. 어떠한 지침이든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은 경영진과 직원의 소통을 강조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우아한형제들’은 분기별로 회사와 구성원 간 쌍방향 소통하는 ‘우아한토크’를 운영 중이다. 노사협의회인 우아한토크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결정할 사항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로 활용한다.

롯데쇼핑 또한 2022년 3월부터 ‘렛츠(Let’s) 쌤물’이라는 명칭의 티 미팅을 한 달에 2~3회 진행 중이다. 렛츠(Let’s) 쌤물은 궁금한 점을 경영진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캐주얼 미팅으로,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가 된 김상현 부회장의 영어 이름 ‘쌤’을 활용해 이름 지었다.⁴⁾

여기서 핵심은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조직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찐 소통’이어야 구성원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공공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리서치의 ‘조직문화력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상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공무원 10명 중 4명(41.3%)이 “그렇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가 곧 ‘내부 마케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탁월한 조직문화 형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넘어 마케팅과 브랜딩의 기술이 됐기 때문이다. 내부 마케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기업과 조직들이 존재한다.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 혹은 기관의 가치를 공감해야 한다. 구성원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는 거짓 행동인 셈이다. 결국 소비자 혹은 대중들도 중국에는 알게 된다. 내부 마케팅은 진정성이다. 상명하복의 기업문화라든가, 매출에만 급급한 행사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 이유나 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성장만큼 조직의 성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4) 『데일리한국』, 「[인재가 미래다] ‘확 바뀐’ 롯데쇼핑, MZ세대가 조직문화 혁신 이끈다」, 2022. 5. 25.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대표 사례 비교: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영국의 UKGI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하나의 소유권 기관에 집중해 행사하는 중앙집중형 소유권 구조를 권고한다. OECD가 권고하는 ‘단일 중앙집중형 소유권 기관’에는 국가지주회사도 포함된다. 200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공기업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국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국가지주회사 설립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적·재무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정치적 개입을 감소시키는 한편,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와 경영 업무를 분리해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공공경제』 Vol. 15에서는 국가지주회사 대표 사례인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Holdings)과 영국의 UKGI(UK Government Investment Limited.: 영국투자공사)¹⁾, 두 기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1) 테마섹 설립 배경과 소유구조

오랜 재정적 성공의 역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테마섹은 1974년 싱가포르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당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관리 하던 35개 공기업의 관리 책임을 부여받았다. 테마섹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는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독립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필요성을 깨닫고 공기업만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국가지주회사인 테마섹을 설립 하면서 정책 결정과 규제라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지만, 정부는 지분을 보유 하기만 할 뿐, 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국부펀드 형태의 기업²⁾이 아니다. 테마섹은 재무부에서 이관받은 자산 전체를 소유하며 싱가포르 「회사법」과 상법의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원고는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9차 OECD 공기업작업반 국제회의의 ‘공기업 국가지주회사’ 세션의 토론 내용과 OECD·싱가포르 발표 자료, 테마섹과 UKGI의 연차보고서, UKGI 임직원 미팅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한 원고임

1) OECD는 테마섹 등 다른 국가지주회사와 달리 직접적인 투자 및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영국의 UKGI를 국가지주회사가 아닌, 조정기관(coordinating agency)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본 원고에서는 상대적인 비교 편의를 위해 지주회사의 법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UKGI를 국가지주회사로 간주하기로 한다.

2) 테마섹이 관리하는 공기업 이외에 기타 싱가포르 보유 자산 및 기업을 관리하는 또 다른 기업인 싱가포르투자공사(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Pte Ltd: GIC)는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국부펀드 형태의 기업이며, 대통령, 국회 및 부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을 적용받는 상업투자회사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회사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관료제적 간섭과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일상적인 운영과 함께 투자 결정을 내리고, 통상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공공정책 목표 없이 이윤 극대화라는 상업적인 목표만을 추구한다. 또한, 별도의 공기업 세제 혜택 없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민간과 유사한 배당정책에 따라 매년 배당을 실현한다.

이렇듯 테마섹이 ‘공기업답지’ 않은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오랜 기간 큰 재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정부 관여를 최소화한 독특한 소유구조³⁾에 있다. 테마섹은 재무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⁴⁾만을 가질 뿐, 일반주식회사로서 국회 출석 및 보고 의무가 없으며, 설립 초기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감사원의 회계 및 직무 감사 대상도 아니다. 테마섹과 100여개에 이르는 산하기업들 간의 관계는 테마섹과 소유주인 재무부 간의 관계와 유사한데, 테마섹은 산하기업의 경영 및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산하기업의 채무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서지 않는다.

2) 테마섹의 기능과 조직, 지배구조

테마섹의 첫 번째 기능은 국가지주회사로서 공기업(Government-Linked Companies: GLCs)⁵⁾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현재 싱가포르 공기업 29개를 산하에 두고 있다. 테마섹의 두 번째 역할은 지주회사로서 효율성이 낮은 공기업의 민영화, 인수합병(M&A) 또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세 번째 임무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로서 국내외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고, 장기적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테마섹은 2002년부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테마섹의 마지막 기능은 축적한 여유자금을 필요시 국가 재정수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테마섹은 주주인 재무부에 지급하는 연간 현금 배당수익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배당액은 싱가포르 정부의 보조적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현재 테마섹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뉴욕, 런던, 베이징 등 9개국 총 13개 해외지사서 약 9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62%가 싱가포르인이며 나머지 38%는 중국인, 미국인, 인도인 등 외국인이다. 테마섹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으

3) 싱가포르 정부(재무부)가 테마섹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설립 초기부터 정부 집권층에서 전문가 집단이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테마섹을 운영하도록 경영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49년간 연평균 13% 이상의 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 총주주수익률)을 달성하는 등 수익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4) 테마섹 소유주인 재무부는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기관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테마섹은 소유주인 재무부에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한다.

5)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정부나 테마섹 등의 정부 소유주가 기업 지분(또는 의결권) 20% 이상을 소유해야 공기업인 GLCs로 분류한다.

로 구성된다. 2023년 현재,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85%가 비상임이사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이사진 중 공무원 출신은 없으며, 대부분 민간기업 출신의 비즈니스 리더들이다.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이틀간 진행되는 분기 이사회를 포함해 연간 총 4회 개최하며, 대규모 투자 승인 등 중요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비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내에는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리더십개발·보수위원회, 리스크·지속가능성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비상임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이사회 의장직과 CEO직은 분리되어 있고,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보충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포함한 별도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다. 경영진은 이사회가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위 경영진은 총 79명이며, 이 중 핵심 사업전략과 기획을 세우는 글로벌 집행위원회(GEC) 소속 임원은 CEO, Deputy CEO, CFO, 개별 해외지사 대표 등을 포함한 22명이다. 고위 경영진 내에 CEO가 의장을 맡으며, GEC 소속 임원들로 구성된 고위매각·투자위원회(SDIC), 고위경영위원회(SMC), 전략·산하기업 및 리스크 위원회(SPRC) 등 3개의 경영위원회가 있다. 2011년 테마섹은 국제 투자회사 지배구조 방침에 따라 본사인 테마섹 홀딩스 내에 별도의 벤처캐피털인 테마섹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는데, 현재 CEO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테마섹 인터내셔널 소속이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는 투자본부, 산하기업 개발본부, 사업개발본부 등 3개의 본부가 있고, 하위 조직으로는 산업별 투자부, 국가별 투자부, 산하기업 전략·리스크부, 지속가능성부 등 수십 개의 부서가 있다. 테마섹의 이사와 CEO 모두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8년 테마섹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했으며, 경영진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인 그룹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발표할 책임이 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회사법」과 싱가포르 「헌법」에 따라 운영되며, 모든 테마섹 임직원과 산하기업 임직원들은 「부패방지법」, 기업지배구조규정 그리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테마섹은 조직 리스크 관리를 위해 평판 위험, 유동성 위험과 장기적인 전체 산하기업 가치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 허용 수준을 규정한 RRAS(Risk Return Appetite Statement)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이후 매년 약 200쪽 분량의 상세한 통합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사업 내용, 성과와 상세한 데이터를 공시하고 있다.

3) 테마섹의 재무구조, 성과 및 산하기업

테마섹은 1974년 설립 당시 정부의 초기 출자금 3.54억SGD(한화 약 3,450억원)로 출발해 2023년 현재까지 정부의 추가 출자 없이 산하기업(portfolio companies)의 배당금, 기업자산 매각 수익금, 채권 발행(2004년~) 등을 통해 운영 및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테마섹과 테마섹의 채권 모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S&P에서 각각 신용 최상위 등급인 Aaa와 AAA 등급을 받았다.

설립 초기 싱가포르 경제 발전과 함께 국내 공기업 관리에 주력했던 테마섹은 2002년부터 해외 투자를 시작해, 현재 산하기업의 71%가 해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 분야는 주로 금융, 운송 및 제조업, 통신, 미디어 및 기술 등이지만,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디지털화, 미래 소비, 지속가능성에 따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이버, 딥테크(deep tech: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및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테마섹은 자국 공기업 관리에 치중한 지주회사 역할을 뛰어넘어 현재 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회사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이 2,870억USD(약 380조 원)에 달하며 지난 20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수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현재, 테마섹 산하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항만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 PSA), 싱가포르전력공사(Singapore Power Limited), 싱가포르교통공사(SMRT Corporation Ltd) 등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산하 공기업에서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한 많은 산하 공기업이 싱가포르동물원(Singapore Zoo)과 같이 국가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거나, 싱가포르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DBS)이나 싱가포르항공(Singapore Airlines)처럼 지역·글로벌 대표 브랜드가 됐다.

해외 자산의 경우, 중국 내 3개 은행을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등 22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 13개 아시아 기업, 21개 미국 기업, 12개 유럽, 중동, 아프리카 기업과 4개의 호주, 뉴질랜드 기업에 거대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산업별로는 운송과 제조업에 23개, 금융 기업 21개, 통신·미디어 기술에 17개, 소비재·부동산업에 16개, 생명과학·농업 분야에 9개, 투자기금에 8개, 기타 6개의 기업을 산하에 두고 관리하고 있다. 산하기업 중 47%가 상장 기업이며 나머지 53%가 비상장 기업이다.

[그림 1] 테마섹 본사와 해외지사 현황



자료: 테마섹, 『2023년 테마섹 연차보고서 하이라이트(Temasek Review 2023 Highlights)』, 2023. 7.

영국의 UKGI(UK Government Investments Limited.: 영국투자공사)

1) UKGI 설립 배경과 소유구조

영국의 UKG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부(HM Treasury) 소관으로 설립한 UKFI(UK Financial Investments Limited.: 영국재무투자공사)와 2003년 내 각사무처 산하에 설립한 공기업 소유권 기관인 공기업실(Shareholder Executive)이 2016년에 통합해 설립한 국가지주회사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단일 기관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설립한 UKGI는 재무부가 100% 출자한 상업형 기업으로, 2023년 기준으로 9개 부처 소속 24개의 공공기관(Arm's Length Bodies: ALB)⁶⁾을 관리한다. UKGI가 관리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업은 BBC 방송국, 우체국, 영국기업은행, 국립고속도로공사, 국영원자력무기개발사, UK개발은행, 왕립 조폐국(the royal mint) 등 24개의 다양한 공공기관(ALB)을 포함하는데, OECD는 UKGI가 관리하는 24개 기관만을 영국의 중앙 공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UKGI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달리 예산 운영의 독립성 및 투자의 자율성이 없으며, 예산 집행과 투자 권한은 아직 재무부가 보유 중이다. 또한, UKGI는 공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9개 주무부처 소관인 공기업에 대한 자문·관리 지원의 기능만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OECD는 UKGI를 국가지주회사가 아닌, 관리형 조정기관으로 분류한다.

2) UKGI의 기능과 조직, 지배구조

UKGI의 역할을 보면 크게 지배구조 지원, 기업재무 지원, 기업우발부채 지원, 자산매각 등을 중심으로 9개 주무부처의 합리적인 공기업 소유권 기능 행사를 지원한다. UKGI는 정부의 기본 정책 목표와 일관성 있게, 공공기관(ALB) 자산의 매각과 민영화, 기업 운영·육성, 지배구조 개선, 시장 분석, 대규모 투자 및 거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KGI는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 협상 시 금융 개입과 같은 공기업 관련 금융 문제 자문, 영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우발부채에 대한 분석 및 자문, 그리고 공공기관 자산의 취득·관리와 매각 실행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UKGI 임직원이 자문과 경영 지원의 일환으로 개별 공공기관(ALB)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UKGI가 개별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이사회 의장 등의 선임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한 UKGI의 연간 업무 분포를

6) 2020년 UKGI가 발간한 『UK Government arm's length bodies』에 따르면, 중앙정부 소관의 Arm's Length Bodies(ALB)를 행정 목적을 위해 행정기관(executive agency: EA), 비부처부서(non-ministerial department: NMD),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 public bodies: NDPB)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정의를 벗어나 일반적으로 ALB란 용어는 위에 명시한 3개 유형의 기관을 포함해 공기업(public corporations), 규제기관, 법원 등 보다 광범위한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데 사용한다. 한국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칭하듯이, 본 원고에서는 편의상 arm's length bodies(ALB)를 공공기관으로 지칭한다.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기업 금융 지원·컨설팅 56%, 기업 지배구조 지원·컨설팅 38%, 우발부채 지원·컨설팅이 6%였으나, 2023년에는 지배구조 지원·컨설팅 51%, 재무구조 지원·컨설팅 22%, 우발부채 지원·컨설팅 19%, 자산실현 지원·컨설팅이 8%로, 지배구조 관련 업무와 부채 관련 컨설팅 업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UKGI는 국의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선도적인 해결책 제공을 위해 각 분야의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며 특히 금융, 기업, 회계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2023년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UKGI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161명이고, 인력 구성에 있어 공무원-민간 전문가 및 남녀 비중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 10명에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며, 이 중 70% 이상이 비상임이사이다. 경영진은 CEO, CFO 등 5명으로, CEO는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않는다. 이사회 내에 감사·리스크위원회, 거래위원회, 우발부채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UKGI는 재무부와 합의한 기준문서/framework document)를 바탕으로 회사 운영의 광범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했다. UKGI의 단독 소유주인 재무부는 CEO, 이사회 의장, 주주대표 이사의 임명권과 이사 임명 승인 권한, 해임 권한, 회사의 보수체계와 예산 집행 권한을 포함한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는 의회에서 UKGI의 활동, 출연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UKGI는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관, 의회, 주무부처에 자문을 제공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다. 주무부처에는 부처별 정책 목표와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한다.

[그림 2] UKGI의 연차보고서 표지: 통합 연차보고서, 현황보고서, 스튜어드십코드 보고서



자료: UKGI, 『2022~23 UKGI 통합연차보고서(UK Government Investments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2023. 7.; 『2022~23회계연도 UKGI 현황보고서(UKGI Overview 2022/23)』, 2023. 7.; 『영국 스튜어드십코드 보고서(UK Stewardship Code Report)』, 2023. 2.

UKGI는 각 공공기관(ALB)과 부처 등이 제공하는 자산, 사업 등 관련 정보에 철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UKGI의 전반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재무부와 UKGI 대표자들로 구성된 분기 주주총회(shareholder meeting)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또한, UKGI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통합 연차보고서, 현황보고서, 스투어 드십코드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 외에도 공공기관(ALB) 실무보고서, 우발부채보고서 등 많은 연구·분석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3) UKGI의 재무구조와 성과 및 산하기업

2023년 기준 UKGI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약 72%가 재무부 출연금이고, 기타 예산은 24개 관리 공기업의 소유 부처(9개)가 지급한 관리·자문료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UKGI가 관리하는 24개 공기업의 총자산 가치는 1조GBP(한화 1,670조원) 이상이고, 총소득은 약 300억GBP(한화 약 50조원), 고용 인원은 총 15만 8천명가량이다. UKGI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UKGI를 통해 영국 정부가 절약한 외부 자문비용은 1억 3,800만GBP(한화 2,308억원)에 달한다고 추정되며, 기업 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UKGI를 통해 보호받은 근로자 수는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UKGI가 관리하는 24개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DE&S, AWE 등 국방산업 3개, 유렌코(URENCO), NDA 등 원자력 분야 4개, 영국자산관리공사, 대영토지등기소 등 자산·토지산업에 4개, 철도공사, 고속도로공사 등 교통운송업에 2개, 왕립 조폐국 등 제조업 1개, BBC 방송국, 우체국 등 통신·미디어 분야에 4개, 영국기업은행, 영국수출금융, NatWest Group 등 금융산업에 7개가 있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매년 UKGI가 관리하는 기업 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2023년 현재 BBC 방송국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정부의 친환경 투자 계획(UK Green Investment Platform)에 따라 관련 기업의 완전 매각을 완료했다.

두 국가지주회사의 비교와 시사점

설립 50년이 된 글로벌 기업 테마섹과 설립 7년이 된 UKGI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국가지주회사의 상이한 두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두 기관 간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두 기관은 설립 배경과 국가 정책 방향부터 차이가 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의 시발점인 197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지주회사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를 다각화하는 일이 일차적 목표였다. 반면, UKGI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영국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막바지에 공기업·공공기관의 소유권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즉, 테마섹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주회사라면, UKGI는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의 '안정성'

에 중점을 둔 지주회사이다. 두 번째로, 테마섹은 투자와 예산 권한을 보유한 완전한 형태의 적극적 투자형 국가지주회사인 반면, UKGI는 투자와 예산 권한이 없는 소극적 관리형 국가지주회사, 또는 OECD가 분류하는 ‘조정기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테마섹은 현재 자국 공기업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이자 국내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인 반면, UKGI는 영국 내 공기업·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문하고, 공공자산의 민영화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국내 지주회사이다. 이렇듯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기관이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두 기관 모두 재무부가 100% 출자한 상업기업 형태의 국가지주회사라는 점 외에도, 가장 큰 공통점은 두 기관 모두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정부의 공공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공기업·공공기관을 과감히 매각하거나,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점이다. 설립 초기 테마섹 산하의 35개 공기업 중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단 10개이며, 그동안 민영화한 공기업 수는 100개를 상회한다. UKGI도 설립 이후 상당한 수의 공기업·공공기관을 매각, 합병 또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자문과 지원을 제공했다. 아래 <표 1>에서는 테마섹과 UKGI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표 1> 테마섹과 UKGI의 비교(2023년 기준)

구분	테마섹	UKGI
설립 연도	1974년	2016년
소유구조/재원구조		
지분 구성	재무부 100%	재무부 100%
정부 재정 지원	49년간 정부 재정 지원 없음	재무부의 재정 지원(약 72%)
투자 및 예산 집행의 자율성	O	X
인적 구성		
직원 수	약 950명	약 161명
직원 구성	현 이사회 내 공무원 출신 없음 ¹⁾	공무원/민간 비율 각각 약 50%
양성 비율	• 임원: 남성 75%, 여성 25% • 직원: 남성 54%, 여성 46%	• 임원: 남성 54%, 여성 46% • 직원: 남성 54%, 여성 46%
내부 지배구조		
이사회 현황	• 13명(비상임이사 85%) •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 임기 3년(재임 가능)	• 10명(비상임이사 70%) •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 임기 3년(재임 가능)
CEO·이사 임명 권한	대통령	재무부 장관
기업 정보		
본사	싱가포르 본사	런던 본사
지사	12개 해외지사	없음
산하·관리 기업 현황	싱가포르 공기업 28개(직접 소유 및 관리·운영) 및 해외 투자 기업 72개 등 총 100개	24개의 영국 중앙 공기업 또는 ALB(공공기관) ²⁾

주: 1) 테마섹 본사와 산하기업 임직원의 공무원/민간 비율 자료는 없음

2) UKGI는 24개 관리 기업에서 소유 지분이 없으며(소유권은 9개의 개별 부처), 각 기업에 대한 자문 및 관리 임무만 수행

자료: 테마섹 연차보고서, UKGI 연차보고서 등 여러 자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우주산업, 우주경제, 우주생태계

근래 들어 GPS, 구글어스(Google Earth) 같은 위성 활용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우주기술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발사 서비스 업체인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성공사례와 맥사 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 플래닛랩스(Planet Labs) 등 원격 탐사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 원웹(OneWeb)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성장은 우주 분야가 단지 우주 탐사 등 과학 연구, 기술 개발의 영역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초기 우주산업은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의 개발·제작 등 하드웨어 개발과 위성을 운용하는 부분에 한정됐으나, 이후 우주기술 발달과 우주 활용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활용 분야로 우주산업 범위가 확대됐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인력 육성, 관련 규제 환경 등을 포함한 우주산업 생태계로서 우주경제를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주산업 관점에서 세계와 국내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우주산업 현황과 전망

우주 분야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유로컨설팅(Euroconsult)가 2022년 세계 우주산업은 약 4,240억달러 규모로, 이 중 발사체, 위성 제작 및 지상기지국을 포함하는 우주 기기 제작(업스트림) 분야가 약 440억달러, 위성 운용을 포함하는 우주 활용(다운스트림) 분야가 약 3,78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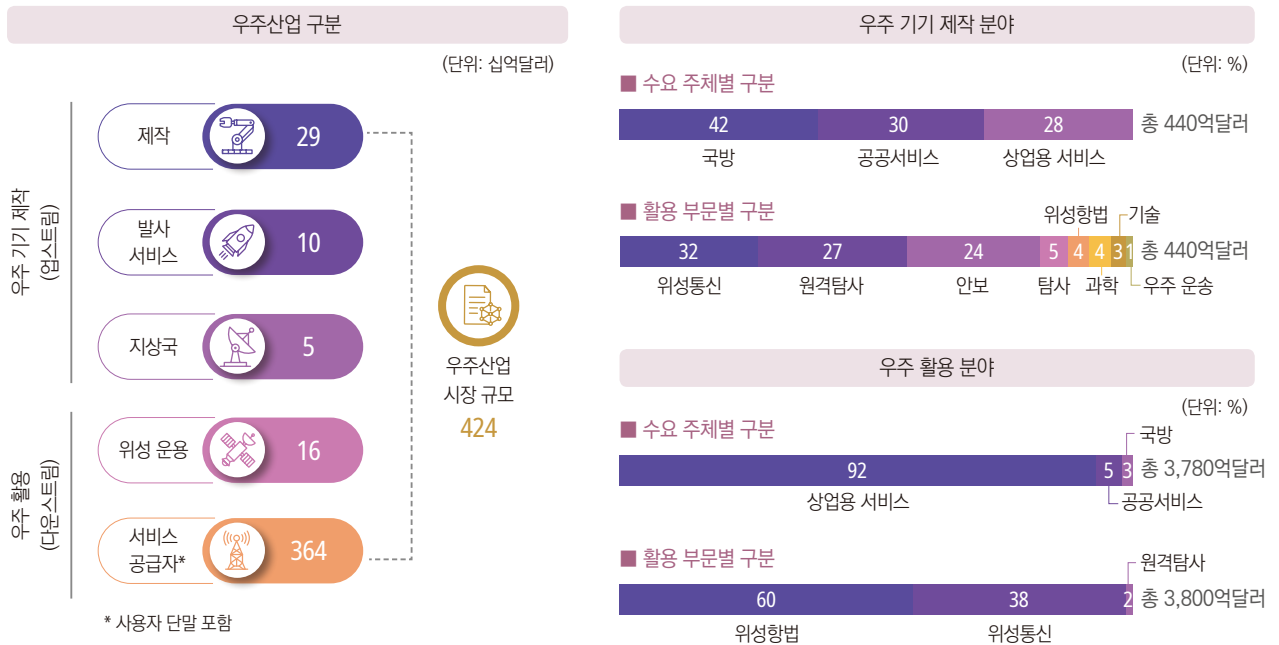
이를 수요 주체에 따라 집계하면, 우주 기기 제작 분야는 국방과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정부 수요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주 기기 제작 분야의 약 9배로 추정하는 우주 활용 분야는 상업용 서비스가 92%가량을 차지한다. 활용 부문을 살펴보면 우주 기기 제작 분야의 경우, 위성통신(32%), 원격 탐사(27%), 안보(24%) 순이며, 우주 활용 분야는 우주 기기 제작 분야에서 4%를 기록한 위성항법이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우주 기기 제작 분야에서 27%였던 원격 탐사는 2%만을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이를 통해 우주 활용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위성항법과 위성통신 부문은 관련 서비



장태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장

[그림 1] 2022년 세계 우주산업 규모



자료: Euroconsult, Space Economy Report 2022, 2023. 1.

스 및 사용자 단말기 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격 탐사를 포함한 위성영상은 재난·재해 대응, 국방 및 안보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업용 시장에서 위성통신 부문은 가치사슬 단계 중에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1,520억달러 중 1,13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성항법은 서비스 및 사용자 단말 시장이 각각 1,090억달러와 1,180억달러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격탐사 시장의 경우, 상업용 시장이 약 65억달러로, 공공서비스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1] 2022년 주요 분야의 가치사슬 단계별 상업용 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분야	제작	발사	지상국	운용	서비스	사용자 단말	계
위성통신	5	2	2	12	113	18	152
위성항법	0.03	0.03	-	-	109	118	227.06
원격탐사	1	0.3	0.2	2	3	-	6.5

자료: Euroconsult, Space Economy Report 2022, 2023. 1.

세계 우주산업의 성장 전망을 살펴보면, 유로컨설팅(Euroconsult)은 2017년 총 3,090억 달러 수준에서 2022년 4,24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세계 우주산업이 2031년에는 약 7,37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운용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각각 16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3,650억달러에서 6,610억달러로 크게 성장한다고 전망했지만, 우주 기기 제작 분야는 현재와 비슷한 300억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표 2〉 세계 우주산업 전망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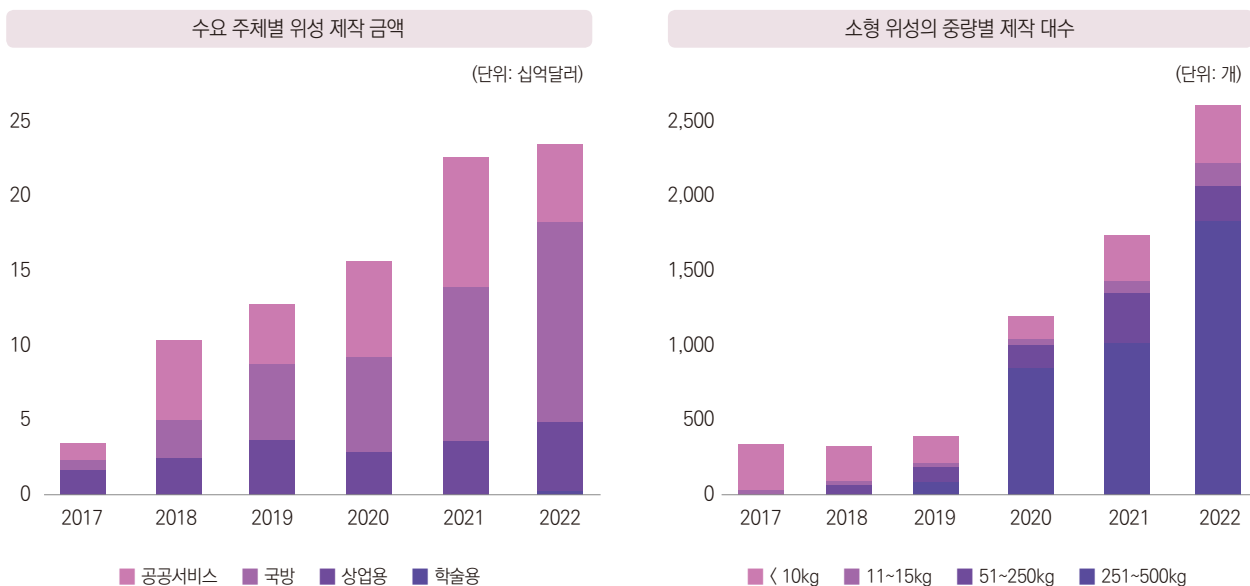
연도	제작	발사	지상국	운용	서비스 ¹⁾	계
2017년	20	7	3	15	264	309
2022년	30	9	4	16	365	424
2031년	30	11	5	30	661	737

주: 1) 사용자 단말 포함

자료: Euroconsult, Space Economy Report 2022, 2023. 1.

위성 종류별 시장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 세계에서 총 4,467대, 약 1,148억달러 수준의 위성을 발사했다. 이 중 상업용 위성이 제작 대수의 약 78%를 차

〈그림 2〉 세계 위성시장과 소형 위성 발사 대수 변화(2017~2022년)



자료: Euroconsult, Space Economy Report 2022, 2023. 1.

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공공분야가 약 82%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공공분야에서 고가의 고성능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활용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작 대수 기준 위성통신이 62%, 원격탐사가 18%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원격탐사가 30%, 안보 목적이 27%, 위성통신이 25%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지난 5년간 위성 제작 대수의 절반을 상회하는 2,700대 이상을 제작했으며, 이 중 500kg 이하 소형 위성이 2,600여대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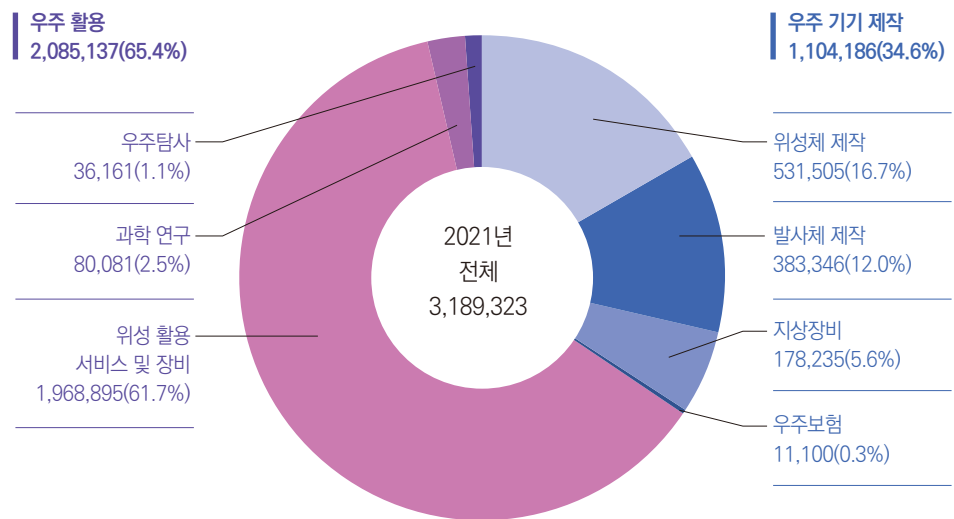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주산업은 위성통신, 위성항법 및 원격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제작 분야에서는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부문을, 그리고 서비스 및 사용자 단말 분야에서는 위성통신과 위성항법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우주산업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2011년 약 1조 974억원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2017년 4조 1,452억원 수준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이후 누리호 제작 완료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2021년에는 3조 1,893억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그림 3]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활동금액(2021년)

(단위: 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022 우주산업 실태조사」, p. 28 [그림 2-4]

과정을 거쳤다.

세계 추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우주 기기 제작 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시장 경기의 흐름과 함께 정부 우주개발 투자계획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우주 활용 부문별로는 총 2조 851억 원 중 위성방송통신이 약 62%, 위성항법이 약 27%, 그리고 원격탐사가 약 5.3%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주 기기 제작 대부분이 정부 투자에 의존하며, 산업 초기 단계로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수립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첨단 우주기술 확보와 우주경제 기반을 구축해 우주탐사 확대, 우주 수송 체계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연구 등을 추진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세계 시장 변화를 수용해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산업의 확장과 속제

우주 개발 분야는 우주 과학, 연구 개발을 넘어 우주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근래에 발사 서비스 가격 하락, 소형 위성 기술 발달 등 우주 활용 분야가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위성통신 부문에서는 대량의 저궤도 위성을 군집 운용해 전 세계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우주 물체와 우주 쓰레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저감하고 우주 물체를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정부 투자가 주도하며 지금까지 다목적 실용 위성, 정지궤도 복합 위성 및 누리호 발사 등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술 개발과 산업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세계적으로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우주 자원의 채취와 경제적 활용 등이 우주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5년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며, 중국은 2035년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 우주 자원 채취와 활용이 상업적, 산업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나, 향후 우주 개발과 우주산업이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022년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는 2032년 자체 기술로 제작한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는 목표를 세워 사업을 검토 중이다.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누리호 발사까지 약 30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세계의 변화를 주목하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쓰는 그 댓글,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2021년 청소년 및 성인의 사이버폭력 중 언어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 후 우울과 불안, 교우 및 사회관계 곤란,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을 경험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실제 상처를 입히는 물리적인 공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린수소 실증 협업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배경

-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역할 및 활성화 필요
- 청정수소(그린수소) 기술은 선도국 대비 5~7년 기술 격차가 존재하여 핵심 원천기술과 상용화 실증이 부족한 상황
- 국내 최대 발전공기업으로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업 및 학계와 협업을 통한 청정수소 역할 확보 추진



추진 내용

-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그린수소 전(全) 주기 실증 프로젝트 추진

추진 목표	협업기관	사업비/기간
국내 최초 수소 생산·저장·활용의 전(全) 주기 실증과 대규모 생산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기술, 서울대 산학협력단, 국내 중소기업 6개 업체	총 74억원 2020년 1월~2023년 4월

- » 수전해 기술 국산화가 저조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

장애요인	해결방안
기기 결함, 설계 및 인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총 45건의 현안이 발생했고, 당시 관련 법률* 시행 이전이어서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황이었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적 의견과 대안 제시로 중소기업 설계 개선 유도 및 별도의 절차서(업무 매뉴얼)를 개발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 운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2년 12월 11일)

추진 성과

» 한수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전한 시스템 운영

- 40년 넘게 원자력발전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인적 오류 예방기법'을 적용한 별도의 운영절차서(매뉴얼) 개발

» 국내 그린수소 실증과제 중 유일하게 연속 운전 성공

- 33일간 시운전 및 48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경험 구축
- 성공적 실증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30여개 기업에서 현장 방문 및 외부 강의 요청이 올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둠
- 협업한 국내 중소기업도 그린수소 생산 관련 경쟁력 제고로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향후 계획

»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수전해 프로젝트 적극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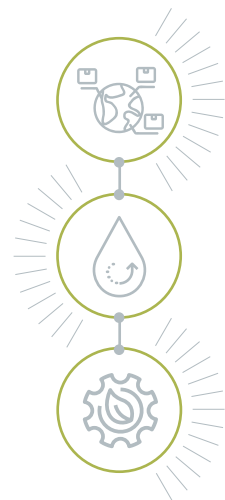
- 호주, UAE 등 수전해 프로젝트 사업을 검토 중인 해외 국가 대상 수주 활동 전개

» 제주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12.5MW) 그린수소 실증 기술 개발 참여

- 그린수소 생산 관련 운전 경험·기술력·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전파

»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제공

- '수소 전(全) 주기 연구센터'를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시험장)로 제공하여 국산화 및 기술 개발 선도



응급 신속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지키기

추진 배경

»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응급의 경우 적정시간 내 치료받기가 장기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① 골든타임(심근경색 120분, 뇌졸중 180분)이 매우 짧고, ② 대표적인 의료인력 취약 분야에 해당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

* 주요 사망원인: (1위) 암, (2위) 심혈관질환, (3위) 폐렴, (4위) 뇌혈관질환

» 이에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응급 이송체계 미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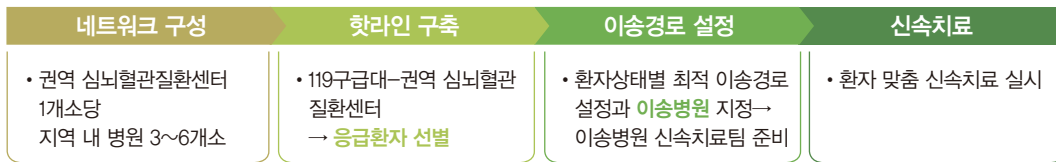
* 관련 정책: 국정과제 66번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제1~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제1~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추진 내용

» (현황 분석) 정부부처-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구성 및 의료현장의 다각적인 분석으로 치료 지연 원인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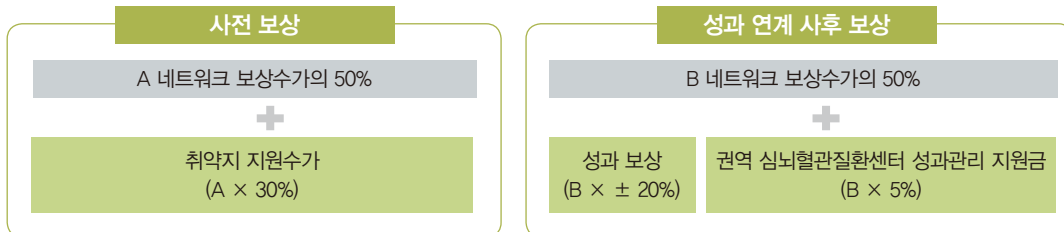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뇌혈관질환 관리 중앙지원단,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소방청

» (신속치료 모형 개발) 네트워크 기반 이송~진료 통합 대응체계 확립



» (혁신적 재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전 보상 및 사업 성과와 연계*한 사후 보상 방안 마련

* 치료 성과, 의료의 질, 이송시간 단축 등 성과평가 지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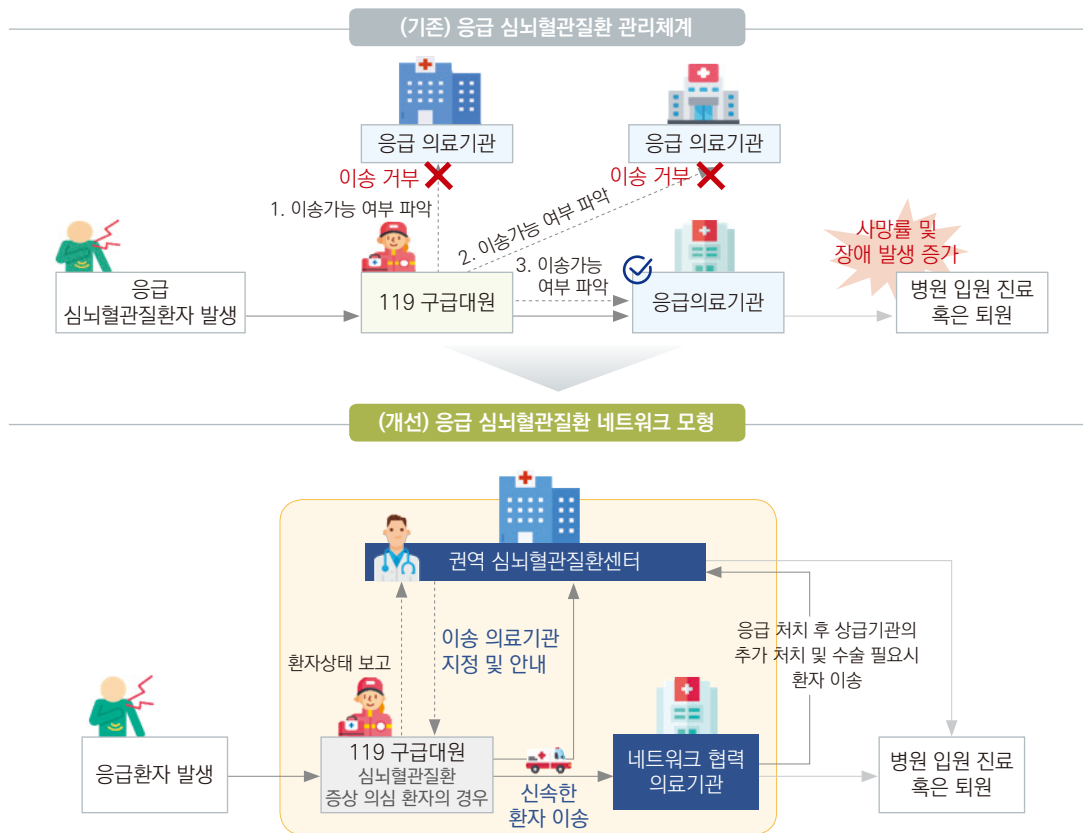


추진 성과

» 네트워크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 보장과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 (급성 심근경색증) 전국 평균 4.9시간 → 2시간 이내
- (뇌졸중) 전국 평균 3.4~5.8시간 → 3~4시간 이내

» 최적의 의료자원 활용으로 의료기관 중복이용 비용 절감 및 사망·합병증 예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향후 계획

- » (2023~2025년) 6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대상 시범사업 시행과 효과 평가 추진
- » (2026년 이후) 전국 권역 단위 전면 확대 추진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을 들여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혁신도시 박람회’에서는 2014년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미니인터뷰를 통해 근무·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고졸 채용 부문’ 당선작 중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이야기가 독자분들에게 흥미롭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

CEO인터뷰

우체국시설관리단 / 한국관광공사

혁신도시 박람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잡(JOB)담

국립공원공단 / 국립생태원

나의 취업성공기

한국조폐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지털 기반의 우정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정호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학 학사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경영학 석사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교 관리학 박사

주요 경력

2023.5~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2023.1~4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 센터장
2022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
2020~2021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장
2016~2018 미래창조과학부 평창 ICT 올림픽 추진팀장
2013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팀장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근무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최정호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경제』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POMA, 이하 ‘관리단’)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정(郵政)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우정시설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 편익’을 위해 2000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관리단은 전국 1,000여개 우체국의 ‘사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미화, 경비, 기술 등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FM)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앙 포스트타워, 여의도 포스트타워 등 서울·수도권 일대 임대형 우체국 11개 국의 ‘공간가치 극대화’를 위한 건물 운영수익 관리, 임대차 마케팅 등 종합 자산관리(Property Management: PM)와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임대형 우체국 개발 타당성 검토, 우정부동산 투자 및 유희자산 활용 방안 검토 등 우정부동산 개발·활용 컨설팅(Asset Management: AM)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정부동산 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종합부동산(Total Solution) 전문기관입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부동산 전문기관 CEO로 취임하셨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 30년의 공직 생활 동안 ICT 분야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치며 디지털 전문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평창 ICT 올림픽 추진팀장으로서 5G,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에게 직접적이고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이 ‘5G 기술에 힘입은 사상 최대의 하이테크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데 이바지했고, 우편물류 시스템 개선, 우편물 분류 효율화, 물류비용 절감 중심의 ‘스마트 우편물류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바라본 관리단은 우정사업에 속한 부동산 시설 및 자산관리·운영의 전문적 노하우와 직원 개개인의 전문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온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우정부동산 종합 관리·운영 기관으로 꾸준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여전히 시설관리 수행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 흐름 속에 관리단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전문역량을 발휘하여, 부동산 개발·자산관리(AM·PM) 중심의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조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환경의 디지털화 필요성



일자
2023년 9월 1일(금)

장소
우체국시설관리단
(서울)

대담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디지털화를 통한
우정부동산 가치
창출 전문기관 도약,
우정부동산 선순환 구조
정립



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프롭테크* 활용 등 디지털화를 통한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출’, ‘고객가치 최우선 경영관리체계 혁신’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문역량 및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화 경영, 핵심역량 경영, 상생안전 경영,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4대 경영 혁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경영 혁신 전략을 통해, ‘우정부동산 가치창조를 선도하는 Total Solution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달성과 ‘자산개발(AM)-자산관리(PM)-시설관리(FM)’의 우정부동산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여, 우정부동산이 우편·예금·보험에 이어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미래 가치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관리단과 우정부동산의 미래 성장을 위한 이사장님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수립한 경영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경영 혁신 전략은 첫째, ‘차별화된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출’과 둘째, ‘고객가치 최우선 경영관리체계 혁신’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토대로 경영·사업환경 전반에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디지털화 경영),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핵심역량 경영), 존중과 소통에 기반한 이해관계자의 상생관계 구축 및 안전보건 경영 실현(상생안전 경영), ESG 경영 체계 구축,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지속가능 경영)이라는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경영은 차별화된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적극 도입과 활용을 통한 사업환경의 혁신과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프롭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외부(공공·민간) 데이터와 우정 데이터를 융합해 입체적인 가치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우정부동산 DB 시스템 고도화’와 둘째, 우정부동산 가치사슬(설계-시공-준공-유지·보수) 전반에 정보공유 등이 가능한 ‘우정부동산 생애주기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우정사업 유관기관에 협업 필요성 제시, 셋째, IoT 기술을 활용한 전국 우체국 설비의 무인감시 및 원격 제어시스템(PSI) 구축 확대, 넷째 RPA(업무자동화처리) 기술 도입을 통한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 없는 업무 환경) 등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세부 과제로 선정해 추진 예정입니다.

핵심역량 경영은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우정부동산의 가치 창출 실현을 위해, 핵

*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산업 + IT 기술(technology) 서비스를 의미함. 부동산 자산의 데이터 구조화, 인공지능 관리체계, 기계학습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

심사업별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첫째, 우정부동산 개발(AM)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둘째, 임대형 우체국 관리·운영 (PM) 범위 전국 확대, 셋째, 통합관리위탁으로의 전환 검토와 임대마케팅 기능 강화를 위한 VR 콘텐츠 활용 등 우정부동산의 활용·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넷째, 유·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로봇청소기 등 디지털 장비 활용과 같이 시설 관리(FM) 분야의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화 경영과 핵심역량 경영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직문화나 근로환경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상생안전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첫째, 소통과 협력·신뢰 중심의 노사문화 구축과 둘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셋째, 휴게 환경 개선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넷째,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협업 채널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요구사항의 경영활동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은 관리단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 우정부동산 자산가치를 창조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경영관리체계 혁신이 주 내용입니다. 첫째,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POMA형 ESG 경영 전략체계 구축과 실천과제 지속 발굴, 둘째, 윤리경영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인권·공정성 등 국민의 요구 가치 보호와 셋째,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 넷째, 조직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설계 및 현장 관리체계 재정립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관리단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직원들의 동기 부여나 독려를 위한 이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이죠. 이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단은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계신 현장 직원까지 약 2,5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직원께서 제 뜻에 공감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관리단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요행이고 욕심입니다. 결국, 제가 먼저 진심으로 직원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가 아는 것들을 전달하려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고 따라와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과 화합·상생이 제일”이라는 소화제의 마음가짐으로 부임 후

“ 차별화된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출과 고객가치 최우선 경영관리체계 혁신 ”



‘소화제(소통과 화합이 제일)’의 마음가짐으로
우정사업과 동행하는
믿음직한 파트너



직원들과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공유하고 경영 혁신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현장 직원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을 주관하기도 하고, 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또 본사 직원들과 매일 1~2명씩 티타임을 진행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혁신 의지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의 임기 종료 후 돌아봤을 때, 관리단과 이사장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와 함께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파트너와 함께 가는 방법’이라고 정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리단과 제가 함께하는 시간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앞서 말씀드린 ‘우정부동산 자산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기관’이라는 관리단의 이상향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향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직원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유한 역량과 열정을 쏟고,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모습은 확신합니다. 우정사업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고, 소통하며 우정사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공유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운 직원 개개인이 관리단의 이상향을 위해 함께하면, 관리단의 목표 달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로서 교류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단이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창출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고, 이어 우정사업 분야의 믿음직한 파트너로 성장해 동행하는 구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관리단의 모습을 제 임기 마지막에 보고 싶습니다. 제 모습 역시 단순히 이사장이 아닌,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했던 한 사람의 파트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임 후 기존과 다른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우리 관리단 직원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공공경제』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부동산 자산가치

Value up



자산가치 극대화
자산개발 AM
(Assest Management)

공간가치 극대화
자산관리 PM
(Property Management)

사용가치 극대화
시설관리 FM
(Facility Management)



관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관광공사가 이끌어하겠습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학력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2022~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
2012~2016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2009~2012 예술의전당 사장
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994~1998 대통령비서실 근무
1979~2009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안녕하세요, 사장님.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개방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관광산업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한국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는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일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1962년에 설립한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본사는 원주에 있고, 현재 5개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 32개 지사, 국내 10개 지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최초에 ‘국제관광공사’로 설립됐던 바와 같이, 먼저 관광 목적 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이 참가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 Berlin)와 같은 해외 주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여행가는 달’,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등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구성원들이 혁신·협업·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등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미래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축해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홍보 영상을 제작해 한국을 매력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 내려온다’, BTS와 배우 이정재를 활용한 홍보 영상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관광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화 기반의 체험 콘텐츠를 확장하고, 여행 전 주기를 모바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를 구축해 관광산업 종사자 간 협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가 열리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위축한 방한 시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특별히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인 443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3%까지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케팅 활동에 정진하여,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인 1천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간 국제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듯 K-컬처는 한류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



이 CEO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유치 목표



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은 ‘K-컬처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제 관광 수요 선점과 방한 시장 조기 회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사는 전국의 다양한 행사, 이벤트 등을 모아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연중 언제든지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외국인 친구분들이 한국에 오신다면 100선 이벤트 정보를 활용해서 한국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쿄, 뉴욕과 같은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현지 소비자, 관광업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K-관광로드쇼’를 개최하면서 ‘여행 버킷리스트’로서 한국의 매력을 직접 발로 뛰며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뉴욕에서 ‘코리아 위크’ 행사를 진행하고 왔는데, 현지인들의 K-푸드, 패션, 뷰티, 웰니스(wellness) 분야를 망라한 K-컬처 전반에 대한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방한 관광객 1위 시장이었고, 특히 한인 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뉴욕 록펠러센터와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을 소개할 수 있어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에 인기 한류스타 차은우를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임명해, 세계인들이 한국을 소개하는 차은우의 영상을 곧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항공 할인 프로모션과 한국방문의 해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현상을 보면서 K-컬처의 힘을 느낍니다. 결국 K-컬처와 관광의 접목이 관광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코로나19 기간 관광산업이 많이 침체했습니다. 여행업계 매출은 95%까지 감소(2021년 관광산업조사)하는 등 참 힘든 시기였는데요, 반면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는 대신,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했고, 국제 관광이 재개됨과 동시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식품과 뷰티 등 생활 한류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한국이 만든 콘텐츠를 향후 3~4년 치, 140여편을 계약했을 정도입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관광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BTS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BTS의 많은 팬(아미)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공사가 호주 아미들과 방한 상품인 ‘BTS Road’를 선보였습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

한 연령층의 팬들이 BTS가 다녀간 관광지를 찾아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전국 곳곳을 방문해 한국 음식을 먹고, 여행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니 BTS로 인해 한국에 관심이 생겨 한국에 왔고, 나중에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싶다는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즉, 한류의 인기가 방한 관광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관광산업이 성장하려면 우리 국민부터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관광 선진국이라 알려진 유럽의 독일, 프랑스 또는 가까이 있는 일본 모두 국내 여행이 활성화된 국가들입니다. 자국민이 먼저 즐길 수 있어야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므로, 국내 여행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 나라를 먼저 살펴보는 경험도 의미가 있습니다. 관광 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국민께서 먼저 발견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알찬 여행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휴가 문화 개선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4만 2천여개 기업, 38만여명의 근로자가 참가했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40.6%가 증가한 14만 2,515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종료됐지만, 내년 초에 다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 관광지 입장권,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습니다. 일종의 명예주민증인데요, 현재 강원도 평창군 등 전국 1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충북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만 3,000명(정주 인구의 67%)의 관광객들이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만족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6월에 진행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잇는 ‘여행이 있는 주말’입니다. 국내 숙박, 교통, 놀이공원 등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국내 관광객의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캠페인인데요, 국민 약 106만명이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여행이 있는 주말’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휴가를 더해 국내 여러 지역으로 주말여행 확대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상품 할인과 숙박, 레저스포츠 체험상품 및 렌터카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공사 ‘대한민국



K-컬처는 한류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패러다임으로 부상





우리 국민에게
국내 여행의 아름다움을
더욱 알리고파



구석구석'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관광 분야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상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추구하는 웰니스로 해소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여행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과 정서적 만족,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웰니스 관점에서 여행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를 약 570조원으로 추산하며,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웰니스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데, 일반 관광객보다 해외의 경우 35%, 국내는 177%까지 높아 내수 진작 차원에서도 웰니스 관광산업은 중요도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의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는 2019년 16위에서 2020년 8위로 도약하는 등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국내 웰니스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사는 전국 64곳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행하며 치유까지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강원도 정선을 비롯하여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2023 한국 웰니스 관광 페스타'를 추진합니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 할인, 무료 체험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전하고픈 전하고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올 초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엔데믹 시대와 함께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정상화 되면서 꼭 휴가철이 아니어도, 일상의 매 순간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여행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우리 일상이 풍요로워집니다. 내년 2월까지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차여행, 레저스포츠 체험, 렌터카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점진적인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여행이 있는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준비한 캠페인인 만큼 다양한 혜택을 누리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이 빛나는 주말에

한달 끝! 여행 시작!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여행이 있는 주말** 을 검색하세요.

캠페인 기간: 매월 마지막주 금토일 (단, 추석 연휴로 9월 캠페인 기간은 9월 22일~24일)



경북 혁신도시, 첨단 교통정보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계획도시로 나아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들을 만나다 —

경북 혁신도시는 첨단 자동차산업과 도로교통 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조성한 스마트도시이다.
교통안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 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동서 간 교통축과 낙후지역을 개발해 교통안전 선진 지역으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번 호는 2014년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들을 만나본다.

첨단 자동차산업과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미래 경북의 성장 거점

경북 혁신도시는 도로교통 안전 인프라를 갖춘 첨단 자동차 특화 도시이다. 도로교통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전함에 따라 관련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자동차 튜닝기술 및 안전 시험센터와 주행시험장, 서비스 복합단지,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단계적으로 기술 지원, 부품 제조 등 복합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 유치와 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 드론 관련 오픈랩(Open Lab) 사업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 혁신도시 발전계획(2018)에 따르면, 중장기 선도 R&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에 드론 관련 혁신 기업과 강소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상설 드론 시험비행장, 드론 전문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는 등 드론 특화 도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 혁신도시는 이미 조성한 국립종자원(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과 연계한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미래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고자 하는 포부도 함께 지니고 있다.

종자증식 진흥센터와 생산시설을 구축한 백두대간 종자증식 단지를 통해 지역 특화 작물의 종자를 증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지 내에 신소득 작물의 시험대(테스트베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 또한 논의 중이다.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1개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교통 분야 2개 기관이, 농축산 부문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3개 기관이 이전했다. 또한 경북의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청 조달품질원,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상청 기상통신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기관 6곳도 이전을 완료했다.

Mini Interview



흔한 직장인의 흔한 혁신도시 이야기



차봉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차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재정회계처는 우리 공단의 회계와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물품 구매·제작·제조와 관련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공단 본사의 일정 금액 이상 물품 계약 건은 저를 거쳐야 합니다!

퇴근 후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혁신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근무지와 집 근처에 학원이 있어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드럼과 크로스핏 등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헬스와 테니스 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골프로 퇴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초장기에 비하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생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하기 좋은 상사, 일하기 힘든 상사의 조건은?

업무를 같이 책임져 주시는 상사가 있다면 정말 일하기 좋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책임을 저 주는 상사가 계시는 때 정말 든든함을 느낍니다. 추가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채 방향을 제시해 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상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르쇠하고 담당자 탓만 하는 상사는 최악입니다.

향후 미래 계획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활동, 자기계발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영역에 도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혁신도시에서 키워도 좋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거리에 학교나 학원도 많고, 특히 우리 공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혁신도시에서 꿈꾸는 미래는 어떤 특별함을 원하기보다는 혁신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가 아닐까 합니다.



Mini Interview

김천 전원생활 경험기



이서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 차장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철도승인처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 운영위탁 사업 연구 지원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서하 차장입니다. 저는 세 아이, 남편과 함께 이주해 2021년부터 도곡촌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힘을 얻으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전과 후의 생활환경을 비교한다면?

김천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주말에만 아이를 데려와서 양육했습니다. 2014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김천 이주 후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자녀와의 교감, 부모의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도시에서는 다소 분주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살다가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사와는 정말 일하기 좋디!

지금 제가 근무하는 철도승인처의 차장님은 닳고 싶은 선배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항상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시며 후배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좋은 선배의 표본이죠. 앞으로 저희 차장님 같은 상사가 많아진다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상승하고, 이직률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차장님을 본보기 삼아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후배를 아끼고, 동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서 당신의 미래는?

경북 혁신도시는 회사까지 도보 15분 정도이고, 주변에 상권도 잘 형성해 있어서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혁신도시와 다르게 KTX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김천이 더욱 발전하고, 김천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퇴직 후에도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했으며, 1995년 4월 5일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 6월 25일에 김천시에 있는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018년 1월 1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을 시행하면서 현재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의 기틀을 다지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1,800여명의 임직원이 국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자동차 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도로·항공·철도 등 교통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기관이다. 본사는 경북 혁신도시에 있고, 전국에 지역본부 14개, 검사소 59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2개와 1개의 부설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교통 분야 패러다임 변화와 ESG 경영 등 급변하는 환경과 모빌리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정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 국정과제에 맞춰 제17대 권용복 이사장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을 통해 기존의 도로, 철도, 항공, 자동차 안전 사업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등 확장 가능한 미래교통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 중심의 모빌리티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미래혁신센터를 경기도 화성시에 구축했으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신규 시행 등 기술 개발 지원과 실증을 통해 모빌리티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관리시스템 자동차 검사를 최초 도입해, 전자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배터리 성능 및 안전 항목 7개를 진단하는 검사를 시범운영 중이다.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과 같은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안 발의와 드론 종사자, 기체, 사고, 보험 등의 안전정보를 연계한 드론 생애주기 맞춤 안전 관리인 종합안전관리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 모빌리티 체계 구축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

해 올해 미래모빌리티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규제 개선 등의 제도 지원과 민간 협력 시범 및 실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튜닝·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튜닝 산업 지원센터를 김천에 건립 중이며, CNG(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 검사소, 울산 수소차 전용 검사소,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3체험교육센터 건립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에 힘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공단은 2017년에 김천시와 ‘사회복지 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매년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2017년부터 그동안 침구류 378채, 고령자 보행보조기 206대, 안전지팡이 770개 등 65백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올해도 김천시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지원 물



첨단 안전장치(ADAS)를 장착한 자동차의 성능 평가를 위한 검사 기술 개발 모습(사진출처: 저자)



올해 5월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TS BRAND DAY' 홍보부스 (사진출처: 저자)



지역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사진출처: 저자)

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경북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김천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택 환경정비에 참여한다. 공단은 올해 1천만 원의 후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5천만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한 물품 지원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 또한 계획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5월 13일에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시민 등 200여명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TS BRAND DAY'를 개최했다. 공단은 지역 축구단 김천상무와 함께 입장권과 소정의 물품을 제공하고, 에코 시뮬레이터 체험,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특점 연계 기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매년 연탄 배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교감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살맛 나는 행복도시 김천



전유성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 연구원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2년 공단에 입사해 1년간 교통안전 지도 업무를 하다 현재는 교통카드 데이터 관리 등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 현재 직장 생활까지 하는 경북 혁신도시 김천은 제게 아주 뜻깊은 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생활의 장단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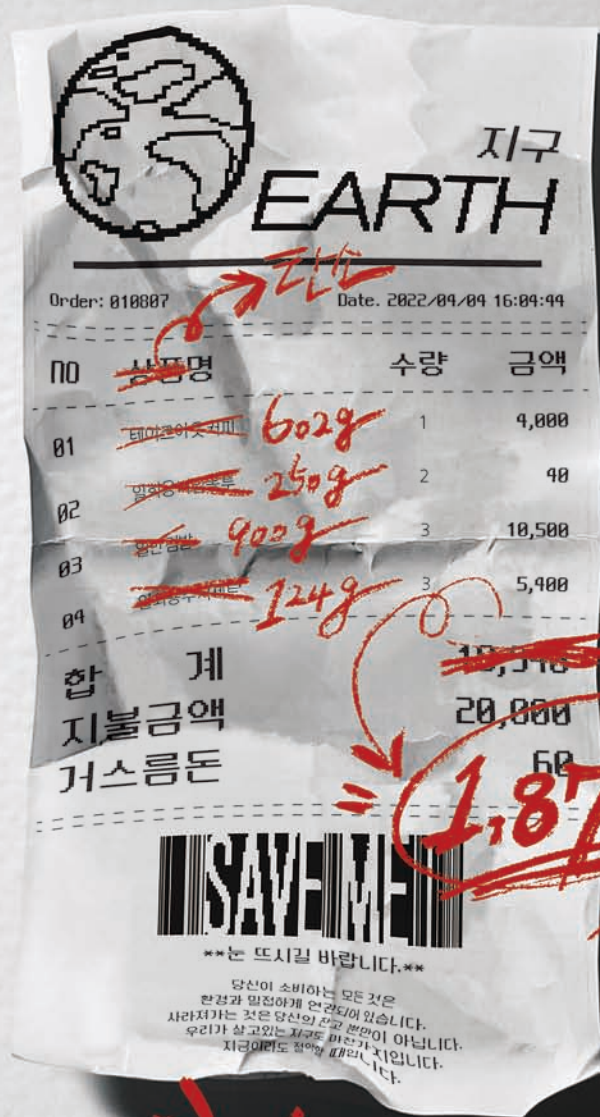
현재 경북 혁신도시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도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행, 음식점, 학원 등 상권 발달, 영화관, 운동시설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 많이 조성됐습니다. 예전보다 도시 인프라가 발달해 생활환경이 좋아진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혁신도시 외곽(구도심)으로 이동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갖출 인프라는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이전 전후 가장 큰 차이점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직장과 집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 소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기본적으로 30~40분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느긋하게 걸어서 15분이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출근하다 보니 아침에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고, 상쾌한 기분으로 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혁신도시에서 당신의 미래는?

김천은 예로부터 물 맑고 산 좋은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그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공기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북 혁신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 업무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속에서 자연과 함께 제 삶의 여유를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김천 방문을 추천해 드리며, 자두, 샤인머스켓 등 지역 대표 과일의 달콤함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으로도
지구로 나눔해
행하세요!

1인당 탄소 발생률 하루 평균 7.18kg. 1년이면 26t입니다.
소비량만 줄어도 지구는 되살아납니다. 무의식적으로 매일 해왔던 작은 소비, 이젠 줄여야 할 때입니다.



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 역사·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립한 국내 유일의 공원 관리 전문기관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 편의시설 확충,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자연보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며,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역량(인성)검사,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전형은 공단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정량 평가해 10배수를, 필기 전형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구분해 일정 비율로 합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이와 함께 면접 전형은 상황·경험 면접과 집단토의 면접으로 진행하며,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 결과를 일정 비율로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임상우
국립공원공단
인재개발부 과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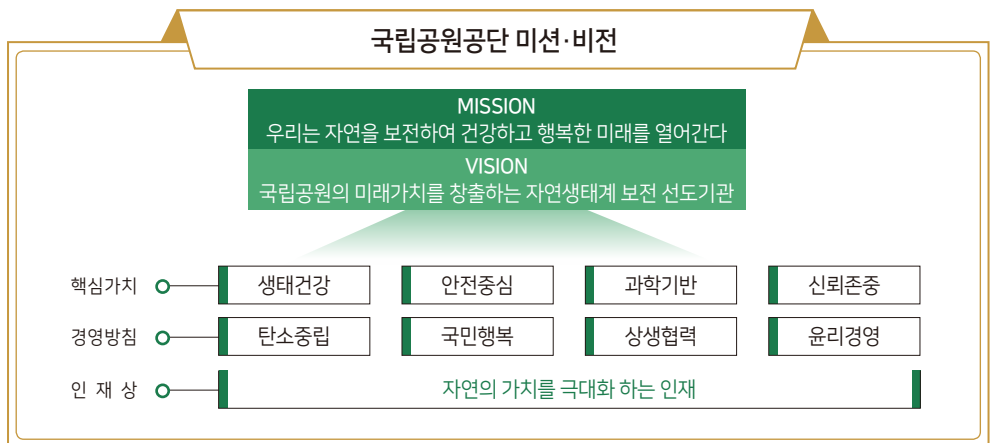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일대기를 단순 서술하기보다는 지원 동기와 역량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관이 제공하는 직무설명 자료의 지식과 기술, 태도와 연계해 직접 수행했거나 취득한 교육, 경험, 자격 사항을 포함하고, 직무역량 평가 요소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이나 학교명, 가족관계 등은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지원 분야에서 개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작성하면 좋습니다.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은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진행합니다. 직업기초능력은 지원 분야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진행하며, 많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과 폭넓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용 수험서를 활용해 문제 유형을 익히고, 특히 환경 분야 시사, 상식 서적 등을 보시면 좋습니다.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분야별 전문지식 평가로, 분야별 기사 시험을 참고해 준비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경험과 집단토의로 구분하는 면접 전형은 문제 상황에서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판단 근거를 설명한 후 필요한 행동과 방법, 상황 해결 후 예상 효과까지 논리적으로 구성해 답변하면 좋습니다. 질문 요지를 명확히 파악해 본인의 생각과 논리를 자신 있게 발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휴식이 필요할 때 근처 가까운 국립공원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와 건강도 챙기면서 국립공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본다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곁에서 자연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국립공원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평가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과 관리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며 관련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동시에 항상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부담이 공존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시기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선배님들께서 보고서도 함께 작성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지방사무소에서 불법 업무를 담당할 때의 경험입니다. 불법 업무란 엄정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 출입 금지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업무로, 특히 사무소 내 야간·새벽 순찰팀을 꾸려 단속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민원인으로 인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정보에 기반한 순찰을 통해서 실제 비법정 탐방로 출입 금지구역에서 산행팀을 적발했을 때, ‘내가 바로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레인지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레인저 교육·해설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탐방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입사 후 지방사무소 현장 근무 여건에 따라 담당 업무가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근무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자원보전과, 행정과, 탐방시설과 등 모든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국립공원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저 또한 그랬듯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 관련 경험 쌓기가 합격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는 말처럼 경험해 봐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길도 잃어보고 실패도 해봐야 잘못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나와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다음으로는 기관이 발표한 각종 전문자료, 언론 보도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활용해서 기관의 최신 정책동향, 트렌드를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꿈꾸고 노력하면,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여러분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반드시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동료 레인지저로서 국립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채용정보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국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국립생태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생태원은 국내 최대 생태연구 인력을 보유한 생태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국립생태원은 깊이 있는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생태계 조사·연구·복원 등을 수행해 국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생태연구 정보를 쉽고 다양한 생태 교육과 생태전시로 풀어내 전달하면서 우리 국민의 올바른 생태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립생태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특히, 세분화한 직무별 채용을 진행하는 '적합 직무 적합 인재' 채용이 특징입니다. 일반직을 기준으로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 전형, 결격사유 확인 순서로 채용을 진행하며, 모든 시험 전형은 편견 요인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합니다. 서류 전형은 지원요건, 자기소개서, 직무 관련 경력·자격 등을 기반으로 적부 및 정량 평가로 진행하며, 10~15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더불어 직무별 전공 시험으로 구성되며 3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 면접 전형은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하며 최종 1배수를 선발합니다.



강하림
국립생태원
인재경영부 과장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지원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국립생태원 직무기술서는 채용 직무별 현직 자가 집필하고, 매년 보완하는 '따끈따끈한' 신상 직무기술서입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관련 경력·경험·자격·교육 사항 등을 기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를 꼭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 블라인드를 준수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검해 주세요.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은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전공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 평가 5개 과목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관리직 전공 시험의 경우, 일반상식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평소 일반상식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직 전공 시험은 공통 주제로 연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생태 관련 이슈를 기반으로 60분 작성 시간에 맞춰 계획서 틀을 구성하고, 작성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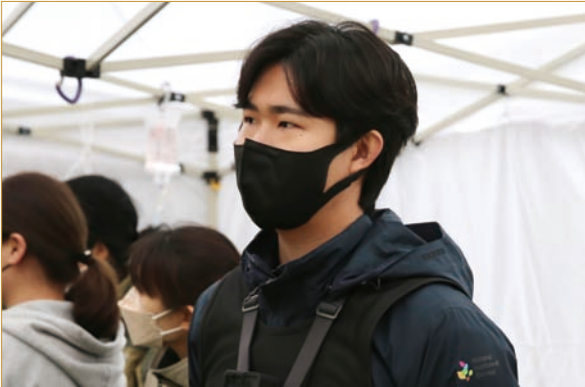
국립생태원 채용의 특징은 전형별 기관과 관련한 경력·경험·지식을 요구하는 등 연계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전 채용 공고문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보고, 국립생태원 관련 이슈 기사를 틈틈이 모니터링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사 지원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입사 선후배로 뵈게 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현직자
인터뷰

뚜렷한 방향, 준비된 마음



진세림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계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진세림 계장입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건강과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2020년 7월에 입사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국립생태원은 연구, 교육, 전시 기관으로, 원내에 다양한 동물이 있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 동물병원에서 아픈 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업무, 동물 도입 시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업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국립생태원 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업무에 그치지 않고, 인공구조물 탓에 죽어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업무도 담당합니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실습 경험입니다. 다양한 실습에 참여했던 이유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기 전에 현직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재미있고 보람찰까?'에 대한 확답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대학 재학 시절 관심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실습을 지원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반려동물 동물병원, 말 동물병원, 소 발굽 전문 동물병원, 마사회에서 실습했습니다(물론 더 다양한 기관에 지원했지만 못 간 곳도 많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하며 느낀 점은,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다는 점이었고, 그러한 인재가 되어야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소개해 주세요

우선, 제가 맡은 업무 중 진료 관련 업무는 수의사 면허가 필요한 특수 직무입니다. 국립생태원 내 동물 진료 업무는 아무래도 반려동물 동물병원에 비해서는 생소한 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양, 담비, 수달과 같은 포유류 그리고 다양한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생소한 존재에 관한 탐구심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얻어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얻지 못한다면, 창의성을 발휘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업무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은 투명하거나 반사를 일으키는 인공구조물이 있는 전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하고,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마련한 해결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물론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동물 진료,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업무는 야생동물의



생명을 살리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업무는 제가 얼마나 맘을 흘리느냐,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그리고 힘든 점입니다. 제 정신력과 체력에 따라, 생명의 꺼짐과 켜짐의 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꽤 심적으로 압박받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을 거쳐 살아가는 생명을 보는 일은 매우 보람칩니다. 제가 더욱 업무에 정진하고, 자기 계발해야 한다고 느끼는 매우 강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2022년 6월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제8조의2)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이 의무화됐고, 연간 22만마리의 야생조류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 사례와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국민 참여 조사 데이터를 관리·검토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조류가 충돌해 폐사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준비해 국

회와 자치단체를 찾아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문제의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었습니다.

또한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가장 보람 있고,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갯가지 자격증, 시험 준비, 면접 준비 등은 분명 준비하는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요소입니다.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분명히 번거롭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은 다양한 관문을 얼마나 잘 겪어내고, 소화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 꿈을 펼치고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아가기 위해 그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감히 응원합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서 부 서무 업무와 견본 담당을 맡고 있는 장현준입니다. 고졸 신분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기회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는 취업준비생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받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 궁금증은 꼭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고장 난 CD플레이어를 분해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인문 과목 공부보다는 과학이나 기술·가정 등 물건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목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전기·전자 분야를 공부하고 싶던 저는 부모님과 선생님 등 여러 어른과 상담을 통해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업 후에도 야간 대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

이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인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조사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전공 과목보다는 인문 과목을 대비하기로 결정했고, 수학과 영어 학원을 인생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학원에 다니니 조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고등학교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1학년 때는 기능사나 다른 스펙을 쌓기보다는 학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내신 공부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인문 과목 공부를 미리 해 놓으니, 처음 접하는 전공 과목에 투자하는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내신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주변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제 실력 또한 키워 나갔습니다.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취업경쟁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전기기능사 등 여러 전공 관련 기사를 준비하며 자격증 취득에 나섰고, 토익 등 어학 점수 향상에도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제 스펙을 쌓았습니다. 또한 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교내 전공 발표대회 등 여러 대회와 프로젝트에도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통해 1년 동안 두 개의 기능사 취득과 토익 점수 740점, 교내 창의능력 경진대회 수상 등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장현준
한국조폐공사
생산처 생산관리부 사원

실패 후 심기일전

공공기관 입사가 목표였기에 2학년이 되고 나서 꾸준히 필기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전공과 NCS 등 필기 전형을 공부했습니다. 매일 서로의 진도를 점검하고, 한 권을 끝내면 교재를 서로 바꿔가며 공부했습니다. 혼자보다 같이 공부하니 좀 더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학년 2학기 때 공공기관 특별채용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필기 전형을 대비해서 공공기관 맞춤 모의고사를 푸는 등 많은 준비를 통해 필기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접 전형에서 탈락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준비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면접 준비 중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깨달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 당시의 상황과 질의응답을 복기하며 보완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잘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며 차근차근 보완해 나갔습니다.

3학년이 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기능사 두 개를 추가로 따며 전공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스터디그룹 내에서 면접 연습도 했습니다. 인성면접 질문,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등을 만들어 모의면접을 진행했고, 친구들과 서로 평가와 제안을 해 주며 면접 전형을 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학교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반복하여 연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답변 내용이나 면접 자세 등이 발전하고 있음을 체감하니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공기관 채용이 줄어들

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도전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조폐공사라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고졸(졸업예정자 포함) 채용 전형이었기에 필기 전형은 조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원한 공공기관 필기 전형에서 대졸자분들과 경쟁해 합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필기 전형에 응시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일정 중 필기 전형 합격 발표일과 면접 전형 진행일 사이 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미리 면접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보고, 공사 관련 뉴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정리하며 공사 주요 사업들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답변을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면접 전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면접에 임했을 때 솔직한 제 생각과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조폐공사 입사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준비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막 넘어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이 남은 만큼 꾸준히, 열심히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선 야간 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며 자신을 성장시켜 앞으로의 인생에 다가올 기회를 잡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는 취업준비생들이 다가온 기회를 자기 것으로 꼭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은 '2022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고졸 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19살,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중3, 인생을 바꾼 '선취업 후진학'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을 때는 언제 인가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겪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외부에서 온 특성화고 전문 강사님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선(先)취업 후(後)진학.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취업 후진학은 경제나 금융, 회계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련 분야에 취업한 뒤, 재직자 전형을 통해 대학교에 진학하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너희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땐 경력 7년 차에 대학교 졸업장도 있는 거야." 강사님이 해 주신이 한마디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무조건 대학교에 가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제게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유별나게 잘해서 자신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학교로 진학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부모님에게도 계속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하

여 17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취업준비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고1,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

2020년 고대하던 고등학교 입학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첫 등교를 5월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계속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많은 여유 시간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격증 시험들은 매년 취소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여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남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분야와 관련한 직종은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등 진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더해서 코로나19가 사그라들 내년쯤에는 교내외 어떠한 대회와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디에 참여해 볼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2학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신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주임

고2, 본격적인 시작! 근데 NCS가 뭐야?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되자마자 1학년 때 세운 계획들을 바탕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며 1학년 때 부진했던 역량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세무, 증권·펀드투자권유대행인, CS Leaders(관리사) 등 총 16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고, 교내에서는 기능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량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교내에서는 '나는 펀드매니저', 경제신문 만들기 등의 경제 체험 활동들과 취업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 대회 등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교외에서는 한국은행의 화폐사랑 UCC 공모전이나 한국경제신문사 주관 경제 체험대회에 참가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도 즐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공기업'으로 진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후 금융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탐색해 보았고, NCS 필기시험을 치른다는 점이 다른 기업들의 채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본격적으로 NCS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듈형·피셋형·피돌형 등 세부적으로 나뉜다는 부분도, 수리·의사소통·문제해결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점도 충격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 방학 동안 학교에 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가량 공부했습니다.

영역이 많다 보니 가장 중심이 되는 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 영역 위주로 서로가 맡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빠르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학기 중에는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여유 시간이 날 때마다 기업별 봉투모의고사를 풀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몇몇 금융 공기업은 경제·경영·금융 상식을 필기시험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 뉴스레터를 구독해 시사상식과 국내외 경제 흐름을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상식 책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며 매경TEST나 한경 TESAT(테셋)같은 경제·경영 이해력 시험을 준비해 실력을 점검했습니다.

내신, 자격증, 교내외 활동 등 다양한 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2학년 학기 말, 학년별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학생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고, 진짜 취업을 하게 될 내년의 기분 좋은 첫걸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3,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결과

"축하드립니다! 2022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2차 면접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최종 합격했을 때의 문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1등 한 번 못 해 봤기에 수도권에서 한 명 뽑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각 전형을 준비하면서 다른 학교의 쟁쟁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고



매우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월 등하다고 해서 내가 결코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그동안의 노력을 쏟아부어 준비하니 좋은 결과로 보답받은 듯합니다.

끝나지 않은 목표

19살의 제 목표는 금융 공기업에 입사였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해 6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서울중부지사에 배정받아 선배님들에게 차근차근 일을 배우며 업무 관련 규정을 습득하는 중입니다.

다음 20살의 제 목표는 꾸준한 자기 계발과 함께 후진학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직 배우고 싶은 분야가 너무 많고, 실제 업무를 배워 보니 공부하고 싶은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는 중입니다. 재직 3년 뒤 재직자 전형으로 후진학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19살 취준생들에게

최근에는 “내신을 좀 더 잘 챙겨볼걸”, “자격증 더 취득할걸”, “다양한 경험을 쌓아볼걸” 같은 후회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최선과 지금의 최선이 다를 수 없기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지만, 그때도 충분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취업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없어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게 보내신다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고졸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을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y Review

2023년 제1권 제2호 원고 모집 공고

원고 접수 기한: 2023년 11월 24일(금)

공공기관과 정책연구는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고분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정부정책(기능·사업)과
운영(지배구조·인사·조직·재무회계·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분야

기고자 자격 및 원고 작성 방법

기고 자격: 제한 없음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15매 내외)

편집 양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지사항 내 논문모집공고 확인
(www.kipf.re.kr/soe/) · 별도의 심사료, 게재료 없음

논문 게재 일정

원고마감일: 2023년 11월 24일

발행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성연주 연구원

Tel: 044-414-2423

E-mail: pipr@kipf.re.kr

기고 방법 및 원고료

pipr@kipf.re.kr 메일로 기한 내 논문 기고 및 문의
게재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 원고료 지급

청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전
Architecture Becomes Art

건축
미술이
되다

건축, 미술이 되다

08.24 ²⁰²³thu — sun 11.19

김주현, 김준기, 나현, 박여주, 안규철, 건축농장(최장원)
하태범, 홍범, 정재엽, 애나한, Paul씨(조홍래), Soo Sunny Park
Angela Bulloch, Neri Oxman, Glenn Kaino

